

제2307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여의도 복귀 '이낙연 사단' 누가 뛰나 5



최승재 "소상공인 위한 선순환 토대 만들 것" 13

코스피(15일) 2230.98 (-7.90P) 코스닥 679.16 (+0.45P)
환율(달러당 원화) 1157.0 (+0.9원) 금리(국고채 3년물) 1.391% (+0.006%p)

韓·美·中·日 '글로벌 증시' 쾌조의 스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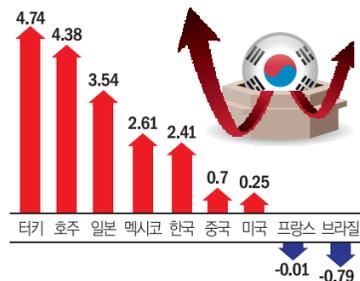
G20, 올해 들어 평균 1.43% 상승
터키·호주 4%·일본 3% 이상 올라
한국 2.41% ↑ G2보다 상승폭 커

올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협상 타결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3면

15일 이투데이가 G20 국가들의 연초 이후(14일 종가 기준) 증시를 분석한 결과 평균 1.4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이 가장 큰 국가는 터키로 4.74% 올랐다. 터키 리라화의 상승과 안정적인 금리, 저평가 매력 등으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모인 영향이다.

연초 글로벌 증시는 △무역협약에 대한 기대 △예상치를 상회한 경제지표 △경기침체 둔화 △연준의 저금리 기조 △경기선행지수 반등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터키에 이어 호주(4.38%), 일본(3.54%), 멕시코(2.61%), 러시아(2.61%)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도 2.41% 오르면서 20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G20 주요국 증시 증감률(단위: %)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각 나라들의 통화 완화 정책과 지지효과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심리로 주식시장이 대부분 상승했다"며 "경기둔화와 금리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인컴 및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분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각각 0.25%, 0.70%로 소폭 반등했다. 양국이 1단계 무역협약에 성공하면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다. 중국 역시 연초효과가 맞물리며 당분간 상승 랠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G20 국가들 중 하락한 곳은 브라질(-0.79%)과 프랑스(-0.01%) 두 곳이 유일하다. 무역분쟁으로 대두 수출 반사이익을 누리던 브라질은 이번 무역협상 1단계 합의로 수출에 타격을 받았다. 이번 합의로 중국에 수출하던 농산물 수출량이 약 100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인도(1.57%), 캐나다(1.48%), 홍콩(1.20%), 사우디아라비아(0.93%), 인도네시아(0.67%), 대만(0.66%), 남아공(0.56%), 독일(0.53%)등도 연초 이후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까지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12개월 선행 EPS(주당순이익) 추정치가 상승하고 있다"며 "반도체를 포함한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제네시스가 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럭셔리 플래그십 SUV GV80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가졌다. 왼쪽부터 장재훈 현대차 국내사업 본부장(부사장),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사장, 이원희 현대차 사장,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 디자인담당 부사장, 이용우 제네시스 사업부 부사장, 이상엽 현대차 디자인센터장(전무), 신태현 기자 holjjak@

"SUV 판도 바꾼다"... 제네시스 'GV80' 공개

'역동적인 우아함' 콘셉트... 자율주행·노면소음 저감 등 첨단기능 갖춰

현대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첫 번째 SUV인 'GV80'을 공식 출시했다. ▶관련기사 10면

제네시스는 1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럭셔리 플래그십 SUV GV80의 공식 출시 행사를 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GV80은 제네시스가 처음 선보이는 후륜구동 기반의 대형 SUV다.

제네시스는 지난 4년여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해온 경험과 럭셔리 감성,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바탕으로 기존의 프리미엄 브랜드와는 차별화한 가치를 제공하는 대형 럭셔리 SUV를 목표로 GV80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제네시스는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담은 외관 △대형 SUV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인 편안하고 깔끔한 내부 △다양하고 매혹적인 컬러 등으로 고급급 극대화 등이 GV80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나이가 국산차 최초의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등 동급 최고의 주행 성능을 바탕으로, 능동형 노면소음 저감 기술, 인체공학적인 시트 시스템에 르노 모션(Ergo motion) 등으로 안락한

실내 공간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한 단계 앞서 나간 고속도로 주행 보조, 10 에어백 등 뛰어난 주행 편의 및 안전 사양과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필기 인식 조작계) 등의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편의 사양으로 혁신적인 상품성을 갖췄다.

제네시스는 3.0 디젤 모델부터 출시하고, 추후 가솔린 2.5와 가솔린 3.5 터보 모델을 더해 총 3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3.0 디젤 모델의 판매 가격은 6580만 원부터 시작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毒 오른 靑... '주택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

文대통령 '원상회복' 발언 이어
김상조 "강남 안정이 1차 목표"
시장은 '실효성 있다' 반신반의

청와대가 15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상조(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12·16 대책에 대해 "재작년

9·13 조치 때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며 "지난주 주간 동향도 굉장히 안정됐다. 조만간 일부 구에서는 하락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절대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했다.

강 수석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묻자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워낙 강력한 정책인 만큼 시행될 경우 투기적 거래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유재산권 제한은 물론 거주자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지적받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들은 거론 자체를 꺼려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거래 허가제는 주택규제책 가운데 가장 센 규제"라면서 "정부가 참여 정부 때처럼 경고 메시지로 그칠지 아니면 실제 도입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데이터3법 악용 우려" 인권위원장 문제 제기

"정보인권 보호 논의 불충분"



최영애(사진)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국회 분회의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성명에서 "(데이터 3법 통과로)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한편,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데이터 3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가공한 '가명정보'에 따른 개인정보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전 국민의 개인 식별번호인 주민등록 제도가 존재해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재식별되면서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개인정보 활용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지난해 11월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정보주체 본인 동의 없이 가명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그대로 포함하는 등 위원회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육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건강한 삶'도 빈부격차... 부자가 서민보다 11년 길어

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와 건강정책 방향' 보고서

고소득자의 건강수명이 저소득자보다 11세 이상 긴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5분위) 인구의 기대수명은 85.1세, 건강수명은 72.2세였다. 반면 소득 하위 20%(1분위) 인구의 기대수명은 78.6세, 건강수명은 60.9세에 불과했다. 건강수명 격차는 11.3세에 달했다.

이는 2010~2015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2008~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기대수명은 당해(0세)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의 평균값이고, 건강수명은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한다. 시도별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가장 긴 지역과 짧은 지역 간 격차는 각각 2.6세, 5.3세였다.

보고서는 "이렇게 사망 수준에 격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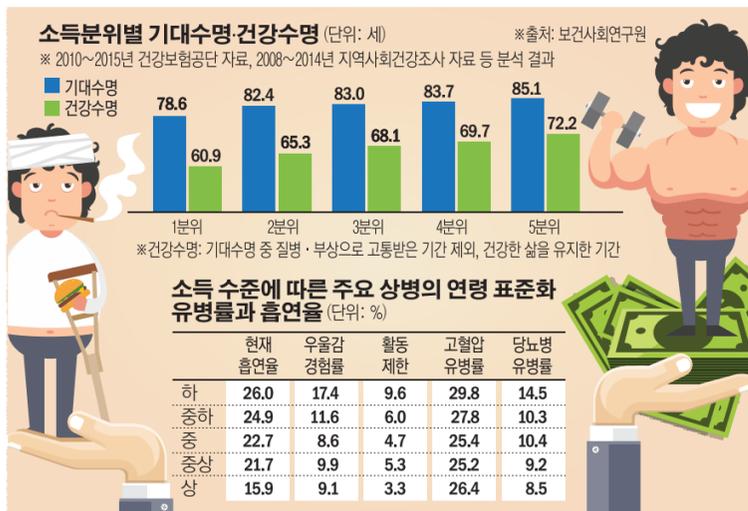
고소득층 건강수명 72.2세
저소득층은 60.9세에 그쳐

흡연율·우울증·당뇨병 등
수익대비 건강관리 수준 비례
"보건의료 체계 공공성 높여야"

낳는 요인 중에서는 회피 가능한 요인 혹은 예방 가능한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회피나 예방이 가능한 요인으로 인한 사망은 '회피 가능 사망'으로 불린다. 이는 '현재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양질의 예방적·치료적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의미한다. 전국 시·군·구의 박탈지수(deprivation index)를 산출해 4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회피 가능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절대격차와 상대

<소득 상위 20%>

<소득 하위 20%>



격차를 불문하고 뚜렷한 불평등이 확인됐다.

일례로 2017년 국민건강통계자료에 따라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를 비교했을 때, 양측의 현재 흡연율은 각각 15.9%, 26.0%였고, 우울감 경험률은 각각 9.1%, 17.4%로 고소득층의 건강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건강·신체·정신적 장애로 활동에 제한을 받는 인구 비율(활동 제한율)은 각각 3.3%, 9.6%, 당뇨병 유병률은 8.5%, 14.5%였다.

이런 격차는 자살 사망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2015년 학력에 따른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률을 보면, 65세 미만 남성 인

구에서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10만 명당 24.5명이 자살했지만,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는 10만 명당 166.7명이 자살했다. 65세 미만 여성 인구에서도 두 집단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12.0명, 97.0명으로 차이가 컸다.

보고서를 쓴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은 "다양한 건강 결과와 건강 행동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뚜렷이 관찰되는데 이는 의료보장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의료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의 까다로운 기준, 노동시장 불평등, 주거 불안정, 전통적 가족 해체로 인한 건강보험 장기 체납 문제 등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표방한 '포용적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다루고 사회적 보호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타임' 선정 발명가 손잡은 LG전자... 차세대 로봇기술 선점 가속도



박일평(가운데) LG전자 CTO 사장이 14일 LG전자 서초R&D캠퍼스에서 김상배(오른쪽) MIT 교수, 백승민 LG전자 로봇선형연구소장(상무)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4족 로봇' 김상배 MIT 교수 협업
내비게이션 기술 접목 등 시너지
美 보스턴 '로보틱스 랩'도 설립

LG전자가 김상배 매사추세츠공대(MIT) 기계공학부 교수와 손잡고 차세대 로봇기술을 개발한다.

김 교수는 2006년 도마뱀처럼 벽을 타고 오르는 스틱비봇(Stickybot)을 발명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스틱비봇은 그해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최고의 발명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 교수는 2012년부터 MIT 생체모방 로봇연구소(Biomimetic Robotics Lab)를 이끌며 4족(足) 보행 로봇인 '치타'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LG전자는 MIT 생체모방 로봇연구소의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물체조작 기술(Manipulation)을 연구한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와 김 교수는 지난해 말 연구과제 선정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협업에 들어간다. LG전자 CTO 산하 로봇선형연구소에서 연구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LG전자는 차세대 로봇기술을 선점할 계획이다. 물체조작 기술은 로봇의 손이나 팔을 이용해 물체를 집거나

옮기는 기술이다.

LG전자는 감성인식과 내비게이션 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다. 4족 보행과 물체조작 기술 분야의 권위자인 김 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 교수는 "글로벌 가전업계를 선도해 온 LG전자와 함께 일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미래 로봇을 LG전자와 함께 고민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박일평 사장은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김상배 교수와의 공동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보스턴에 로봇 연구거점을 마련함

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사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미국 보스턴에 'LG 보스턴 로보틱스 랩(LG Boston Robotics Lab)'을 설립한다. 보스턴은 로봇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이 몰려 있어 기술 연구가 활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로봇 산업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LG전자는 로봇 인프라가 풍부한 보스턴에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로봇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김 교수와 더욱 긴밀하게 공동연구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로봇을 미래사업의 한 축으로 삼고 산업용에서 서비스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로봇과 로봇 관련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aT가 함께 합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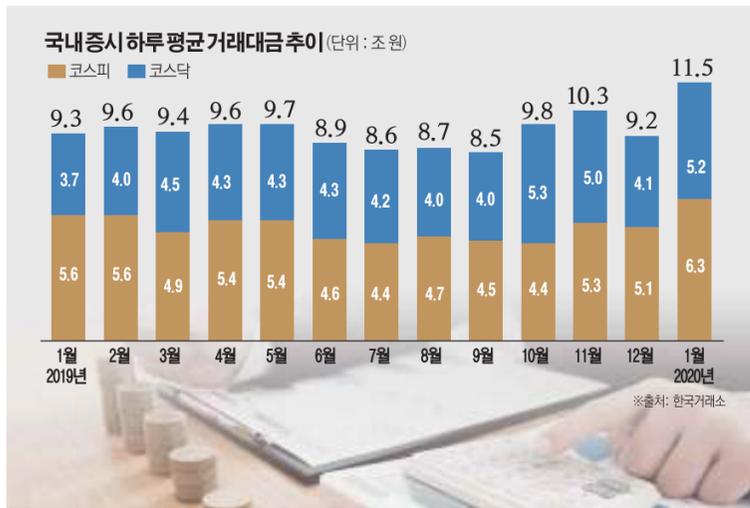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 혁신
보다 나은 우리 농식품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반도체 반등 기대감... 국내증시 투심 살아났다



무역갈등 완화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로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14일 종가 기준) 국내 주식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11조50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증시 평균 거래대금(9조3000억 원)보다 24%가량 증가한 수준으

로, 지난해 첫 거래일인 2일(9조1147억 원) 하 루뿐이다.

특히 외국인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 공세에 나섰다.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765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전월 순매수 금액이 6000억 원가량에 그쳤던 반면 올해는 열흘간 3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사들였다. 기관은 5조894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개인은 10조695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하루 평균 증시 거래대금 11조5055억 달해 지난해보다 24%가량 늘어 11조 원대 회복

외인 대형주 중심 '사자'...올 2.7조 순매수 "다른 시장보다 투심 양호...주가 더 오를 것"

가야차(1442억2900만 원), S-Oil(892억 1800만 원), 셀트리온(799억6800만 원)을 대량으로 매수했다. 외국인은 삼성전기(1586억5500만 원), 삼성SDI(1260억 8200만 원), 엔씨소프트(1138억7000만 원), 카카오(1127억3899만 원), 호텔신라(1123억6000만 원) 등을 순매수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의 1단계 합의 서명과 저금리 기조,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시장 투자자들은 오랜만에 약재보다 호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투자심리가 다른 시장보다 양호한데 코스피는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 △무역분쟁 장기화 △총선 △1분기 실적 전망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까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며 "국내 역시 불확실성과 높아진 차익 욕구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로, 지난해 12월(9조1635억 원)과 비교해도 약 26% 늘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해 5조 원에서 올해 6조2175억 원으로, 코스닥은 4조3000억 원에서 5조2340억 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10거래일 동안 거래대금이 10조 원 아래로 떨어진 날은

가를 경신했다. 올 들어 개인과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각각 2345억4300만 원, 5552억4900만 원어치를 사들였다. SK하이닉스 역시 각각 1173억2700만 원, 250억 4900만 원어치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 밖에 개인은 SK이노베이션(1605억 1300만 원), 현대차(1558억800만 원),

美·中 1단계 무역합의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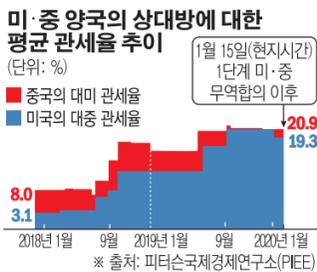
글로벌 경제 먹구름 걷혔지만 완전한 종전까지 곳곳에 '복병'

미국과 중국이 역사적인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양국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5일 오전 11시 30분(한국 시간 16일 오전 1시 30분) 백악관에서 무역합의 서명식을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에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8개월 만에 양측이 평화를 위한 중대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라고 미국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는 강조했다.

이번 1단계 무역합의에서 미국은 중국 측에 부과했던 관세 등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중국은 그 보답으로 농산물 등 미국산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합의에 따라 당초 작년 12월 15일 시행하



만 이런 논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미국 제조업체에 타격을 줬으며, 중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이라고 마켓워치는 설명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1단계 협상에서는 무역전쟁을 불러일으켰던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나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량 등 첨단 기술을

美, 1600억 달러 관세 철회 등 일부 제재 완화
中, 미국산 제품 2년간 2000억 달러 구매 합의
AI·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 패권 문제는 빠져
美 "대선 전까지 추가 관세 인하 없을 것" 췌기

기로 했던 1600억 달러(약 185조 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200억 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율은 종전의 15%에서 7.5%로 절반으로 낮춘다. 나머지 25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중국은 향후 2년간 미국산 상품을 약 2000억 달러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부문에서 500억 달러어치, 농산품은 320억 달러, 공산품은 750억~800억 달러, 서비스 부문은 350억~400억 달러의 추가 구매 목표가 세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강제적 기술 이전을 억제한다. 또 수출에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환율 조정'도 1단계 무역합의에 포함된다. 이미 이런 약속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 재무부는 13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지정 해제했다.

무역합의 내용을 놓고 미·중 양국 중 누가 승리했는지 의견이 분분하지

둘러싼 패권 다툼 등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2단계 협상이 시작되면 양측의 갈등과 긴장이 지금보다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 정부는 1단계 무역합의 이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대중국 추가 관세 인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 공동 성명에서 "추가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어떤 구두나 서면 합의도 없었다"면서 "이와 반대되는 소문들은 확실히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단계 합의 이후 중국 측에서 나올 추가 관세 인하 요구를 들어줄 의향이 없다는 점에 췌기를 박은 것이다.

이에 투자자들이 실망하면서 같은 날 사상 최고치로 나아가던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약세권에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지수는 0.11% 올랐지만 S&P500지수는 0.15%, 나스닥지수는 0.24% 각각 하락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 요즘 해외주식 직구가 인기라는데,
해외주식 투자는 어디서 해야 하나? ”

글로벌 투자 · 자산관리의名家
하나금융투자에서 시작하자!

온라인 5개국, 오프라인 23개국 *기준일 2019.7.5
28개국 거래 가능 서비스

해외주식 전문가의
24시간 상담 서비스 02)3771-3771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보호보험 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 가능 *해외주식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해외주식은 현지 사정에 따라 결제일이 지연될 수 있음 *해외주식 매매수수료는 온라인기준 미국 0.25%(최소수수료 USD 5), 중국 0.3%(최소수수료 없음), 오프라인기준 미국 0.5%(최소수수료 USD 20), 중국 0.5%(최소수수료 CNH 50), 국가별, 주문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9-02690호(2019.07.05~2020.07.04) CC브랜트190705-64 m.hanaw.com | 1588-3111

<17시간 이하>

60대 이상·초단기 일자리가 끌어올린 고용지표

통계청 '작년 고용동향'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40대는 전 연령계층에서 유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부진이 지속된 탓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71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0만1000명 늘었다. 11월까지 누계 취업자 수 증감은 27만 명대에 머물렀으나, 12월 취업자가 51만6000명 늘어 연간 집계로 정부 전망치(28만 명)도 넘어섰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5~64세 고용률 66.8%... 취업자 수 30만1000명 늘어
60세 이상 고용률 1.4%p↑ ... 1~17시간 30만명 증가
제조업·도소매업 부진으로 40대는 16만2000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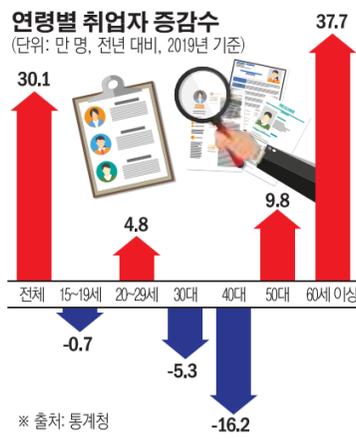
66.8%로 집계됐다. 각각 1997년 이후, 통계가 집계된 1989년 이후 최고치다. 실업률은 3.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단 40대는 취업자(-16만2000명)가 인구 감소폭보다 큰 폭(-13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고용률은 78.4%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취업자 증가 폭이 50만 명을 넘었던 12월에도 40대 취업자는 12만8000명 줄고, 고용률은 0.6%p 내렸다. 40대 취업자 감소의 주된 배경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부진이다. 두 산업의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각각 8만

1000명, 6만 명 감소했다.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호조를 보였다. 산업별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만 명)과 숙박·음식점업(6만1000명)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이 각각 5만6000명, 3만1000명 줄었지만, 상용직이 44만4000명 증가했다. 자영업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8만1000명 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4000명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4000명 감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하며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인 일자

리 반등의 해였다"며 "이러한 고용지표의 반전은 인구가 증가하며 취업자 증가가 당연시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이루어낸 것으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고용지표 개선을 견인했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보다 37만7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 폭(30만1000명)을 상회했고, 고용률은 1.4%p 올랐다. 취업시간대별로는 1~17시간 취업자가 30만1000명 늘었는데, 주로 노인 일자리 확대와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23만8000명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53만3000명으로 9000명 늘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8시 개통됨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세무서 법인납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연구개발 목적 의료정보 활용 허용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완화 제3차 합병증 경로 파악 가능 新의료기술·의약품 개발 예상

정부가 연구개발 목적의 의료정보 활용을 허용한다. 자체 의료데이터가 없는 의료기관도 특정 질환이나 신체적 특성을 가진 사람의 합병증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 등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신의료기술이나 의약품,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마련된 핵심규제 개선방안은 연구·산업현장에서 제기된 4대 분야 중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및 파생연구지원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조치 등의 법적 근

거가 미비해 의료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최근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됐다.

가명정보 재식별화 및 유출은 엄격히 제한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재식별화 조치를 시도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며 "보안조치들이 명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담아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현재 별도의 허가품목이 없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해 별도 허가품목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영상 진단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융복합된 의료기기에 대해선 우선심사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도 4대 분야로 나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김용균법' 오늘 시행... 산재 사망사고 감소 기대

유해·위험 작업 사내 도급 금지 위반 시 강력 처벌... 기업들 긴장 근로자 사망 뎀 기업 벌금 10억

16일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에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 산안법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비정규직 직원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산재 사망 근로자 감축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데에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앞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국회에 한동안 계류됐었다.

우여곡절 끝에 16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에는 기업들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안전규제들이 담겨 있다.

우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 등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

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원청 사업자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안전책임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도 종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 근로자 수는 855명으로 전년보다 11.8%(116명)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 근로자 절반 줄이기(2017년 965명→2022년 505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경찰·소방·집배원 등 3년간 10.3만명 충원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돌봄 등 사회적 가치 사업 지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나 이사 추천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공공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경찰, 소방, 사회복지,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10만3000명을 올해부터 3년간 채용하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다함께 돌봄 등 사회적 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100개 내외를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어젠다로 채택해 중간 정책 추진기반 마련과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부분·개별적 추진으로 체계적 정책 방향 설정과 전반적 인식 공유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국제비교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1위 수준이지만, 삶의 질 관련 국제지표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이고 특히, 공동체(사회관계망 질), 대기오염, 자살률 등은 최하위 수준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이에 따라 이번 추진전략에서는 '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을 비전으로 △사람 중심 포용사회(인권, 건강·보건, 노동, 사회통합)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환경, 안전)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시민사회, 참여, 지역경제, 지역사회) △상생경제(CSR, 상생협력, 일자리) 등 4대 실현 방향, 13대 세부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의 전반적 운영원리(조직·인사·재정·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실천적·균형적으로 반영하고 사회구성원(민간, 시민·공동체,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가치실현 활동이 확산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별 특성·여건을 고려해 근로자의 이사회 참관·참여, 이사 추천 등 노사 협력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이미 한국수자원공사 등 28개 기관에서 도입했다. 또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지역량 평가 등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공무원 필수 학습 요건에 업무 외 봉사, 재난구조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국민소통·공익 활동 등을 지정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공정위 '일방적 요금 변경'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고객 동의 구하고 요금 변경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초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사업자(OTT)인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요금변경 이용약관에 메스를 들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요금 변경 시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세계 1위 OTT 회사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했다.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등으로 우리나라 이용자 수는 200만 명에 이른다.

공정위는 먼저 넷플릭스의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조항은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및 멤버십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지만 하면 다음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고객들에게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해 동의를 얻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1호 공약은... 민주 '공공 와이파이 구축' 한국당 '탈원전 폐기'

민주당, 청년층 표심잡기 총력
한국당, 증세·복지지출 제동
정의당 "전세 주거권 9년 보장"

4·15 총선을 3개월 앞둔 여야가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연초 화제성 인재영입을 통해 총선 분위기를 띄웠다면 이번에는 정책대결에 돌입하는 흐름이다.

여야는 15일 '1호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총선공약 발표식을 열고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곳곳에 공공 와이파이 5만 3000여 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는데, 국민 부담과 데이터 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의 '1호 공약'인 만큼 의미도 크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한때 모병제 도입처럼 목적인 공약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1호 공약'으로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택했다. 검찰개혁 입법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누적된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을 감안해 정치적 논란이 적은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을 공략하려는 포석도 함께 깔려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청년층 표심'에 사활

을 걸고 있다.

한국당도 이날 국회에서 △재정건전화법 제정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희망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재정건전성 강화 공약은 정부의 증세와 복지지출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 노동개혁은 고용과 해고 요건을 완화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탈원전 지지 공약으로는 신한울 3·4호기와 월성 1호기 재가동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구도를 띄우겠다는 한국당의 전략이 담겨 있다.

한국당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이날 발표한 공약이 실제 '총선 1호'라고 정정했다. 당 안팎 모두에서 비판이 쇄도하자 선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공수처 폐지는 검찰 인사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하다 보니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날 무주택 세입자에 주거권을 9년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9일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청년기초자산세'를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공약이다. 또한 정의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총선에 '이낙연 사단' 누가 뛰나

배재정 전 총리 비서실장, 부산 사상구 출사표
지용호 서울 동대문·이상식 대구 수성을 출마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 출마에 무게가 쏠린 가운데, 이른바 '이낙연 사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점이 단점으로 꼽히는 만큼 총선을 거치며 세력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리실 출신 인사 가운데 배재정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지용호 전 정부실장, 이상식 전 민정실장이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 이들은 이낙연 체제 국무총리비서실 1기 멤버다.

이 전 총리의 첫 비서실장이었던 배 전 실장은 부산 사상구에 출사표를 냈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았던 배 전 실장은 첫 여성 총리 비서실장으로서 1년 5개월간 이 총리와 함께했다.

정무실장으로서 2년여간 재임하면서 정부와 국회 간 조율 업무를 맡았던 지 전 실장은 서울 동대문에, 부산지방경찰청장 출신으로 1년 5개월간 민정실장으로 일한 이 전 실장은 대구 수성구에 도전장을 낸다.

문은숙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도 경기 의정부에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히고 14일자로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의 전남지사 재임 시 최측근이었던 우기종 전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전남 목포에서 경선을 준비 중이다. 이남재 전 이낙연 전남지사 정무특보도 광주 서구에 나선다.

원내 인사로는 이개호 의원이 3선을 모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 의원은 이 전 총리의 지역구였던 전남 담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당으로 돌아온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환영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뉴시스

양·함평·영광·장성을 이어받았다. 이 전 총리와 함께 최근까지 총리실에 몸담았던 남평오 민정실장, 노창훈 정부지원과장, 양재원 민원정책팀장, 김대경 주무관 등도 14일 사퇴했다.

남 전 실장은 이 전 총리의 전남지사 재직 시절 서울사무소장을 맡았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노 전 과장, 양 전 팀장, 김 전 주무관 모두 이낙연 의원실 출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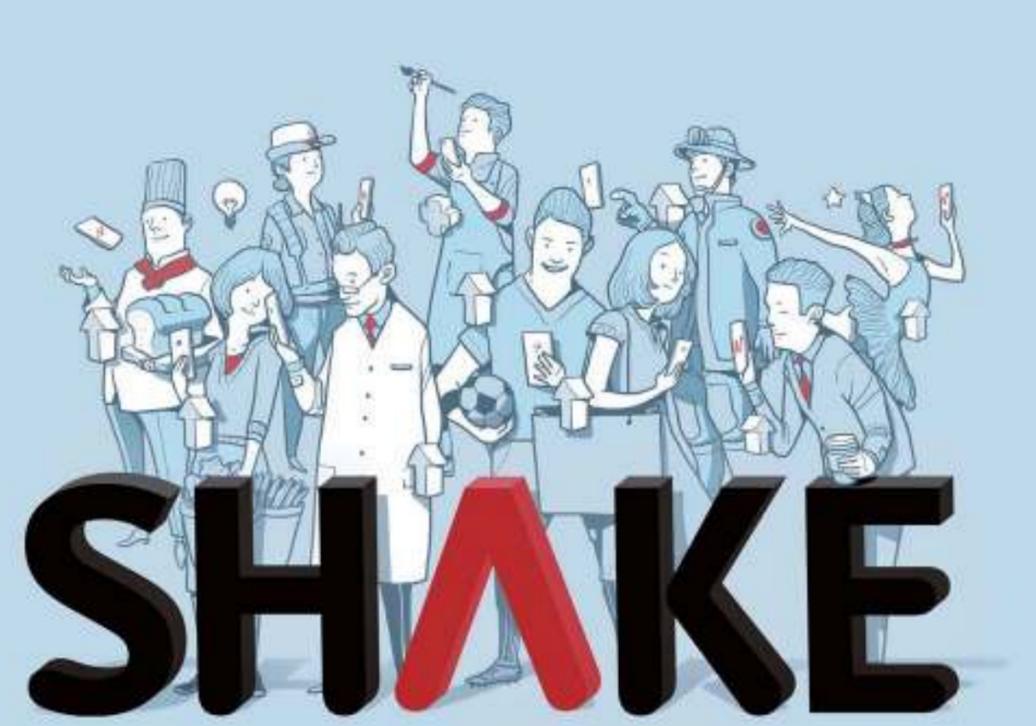
이들은 이 전 총리의 국무총리, 전남지사 재직 시절 함께 근무해 '범이낙연계'로 분류될 수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 마이크 폼페이오(가운데) 미국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외교부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퀴터백}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조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에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타트업 매매수수료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차 테스트베드 통과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1588-8245




정세균 "국민과의 소통행정 펴 달라"

첫 국무회의 주재... "부처 경제활성화·민생 매진" 강조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직제 개편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중기부에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과 2개 과를 평가 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4명, 6급 2명)이 증원된다.

또 정부는 하천수 사용료를 '하천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하천수 사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 하

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경제활성화와 국민체감 성과 창출 등을 당부했다. 그는 "각 부처는 올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 달라"며 "특히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현장에서 국민과 '대화'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 달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은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에 대해선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설연휴와 관련해서는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박병립 기자 riby@

이전투구 격화... 끝나지 않은 LG·SK '2차전지' 전쟁

특허전쟁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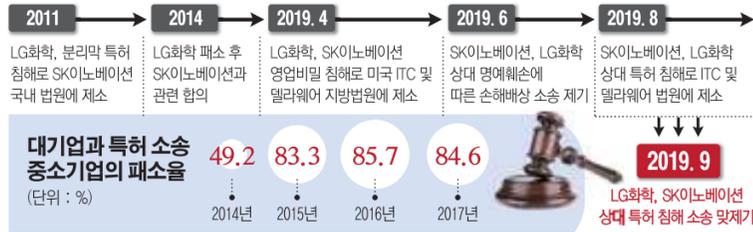
국내 기업간 소송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하며 국내 기업 간 특허를 둘러싼 '집안싸움'도 거세지고 있다. 미래 산업의 '헤게모니'를 놓치면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한국 간판'을 단 기업들은 기술력을 지키기 위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 간 특허 소송으로 시끄러운 분야는 '2차전지'다. 친환경 자동차가 각광을 받으며 배터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이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기업 간의 특허 소송이 불거진 것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특허 소송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G화학은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서울

LG화학-SK이노베이션 소송일지



LG화학 "30년 투자로 이룬 결실" SK이노 상대 美서 '특허 소송' SK이노, 명예훼손으로 맞소송 대·중소기업 '특허전'도 잇따라 中企 대부분 자금 부족에 패소

중양지법 등에서 패했다. 이후 2014년 양사는 당시 LG화학 전지 사업본부장이었던 권영수 LG 부회장과 김홍대 SK이노베이션 소형전지사업부장

이 전격 합의를 하며 소송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LG화학이 휴전을 깨고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라는 명분으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델라웨어 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자사의 2차전지 사업은 3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며, 만약 후발업체가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손쉽게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어떤 기업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6월 국내 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8월 ITC에 LG화학은 물론 LG전자까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LG화학 역시 이에 맞대응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차원의 중재도 있었지만, 양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는 무산됐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오월동주(吳越同舟)라는 말은 옛말"이라며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격전하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특허 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 산업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이 같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대·중소기업 간 특허분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은 전체 특허출원의 23.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냈으며, 대기업은 17.5%를 차지했다. 그러나 특허 싸움에서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을 활용해 유력 로펌을 선임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거나 물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서오텔레콤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15년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 권리범위 확인소송을 펼쳤지만 지난해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중소기업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대기업과의 거리가 멀어질 것을 우려해 특허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대기업과의 특허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하는 경우는 5곳 중 1곳이 채 되지 않는다. 특허 분야 심판의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5년 83.3%, 2016년 85.7%, 2017년 84.6%를 기록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지식재산 강국 '코리아'

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 인구 대비 특허는 '세계 1위'

(2009~2018년)

GDP 대비 출원건수도 '1위'

심사처리 3년서 10개월로 단축 '특허넷 시스템' 해외 수출 성과 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 부상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중국	133만18503건	138만1594건	154만2002건
미국	60만5571건	60만6956건	59만7141건
일본	31만8381건	31만8481건	31만3567건
한국	20만8830건	20만4775건	20만9992건
유럽연합	15만9358건	16만6585건	17만4397건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한국	3189건	3091건	3148건
일본	2049건	2053건	2005건
스위스	1042건	1020건	1081건
중국	874건	899건	1001건

최근 10년 새 삼성과 애플, 퀄컴 등이 '특허전쟁'을 치르면서 특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20만 호 특허증'에 직접 서명하는 공개 행사를 개최하며 기술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도 특허의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꼽

힌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및 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데이터 센터의 가장 최근 집계인 2018년 기준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이 154만2002건으로 2011년 이후

8년째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는 미국으로 59만7141건을 특허출원했으며, 일본이 31만3567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한국은 20만9992건으로 세계에서 4위를 기록했다. 5위는 유럽연합(EU)으로 17만4397건이었다. 전체 특허출원 건수에서는 4위이지만, GDP와 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

출원 건수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1위다. 2018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3148건에 달한다. 2위는 2005건을 기록한 일본이 차지했으며, 3위는 스위스(1081건), 4위는 중국(1001건), 5위는 독일(884건)이 차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인구 대비 특허출원 건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GDP 대비 특허출원 건수 역시 최근 10년간 모두 1위다. 2018년 우리나라의 GDP 1000억 달러당 특허 출원 건수는 8561건에 달했다. 2위는 중국으로 6183건을 기록했으며, 일본이 5101건, 독일이 1924건, 스위스가 1831건으로 뒤를 이었

다. GDP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 역시 마찬가지다. 특허심사 처리 기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90년대 중반 3년이 넘게 걸리던 특허심사 처리 기간은 평균 10개월 수준으로 단축됐다. 이 같은 우리의 특허넷 시스템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하는 성과를 낼 정도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특허행정부의 한류 바람은 특허청이 1999년 특허행정 전 과정을 세계 최초로 전산화한 뒤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 노하우를 쌓아온 결과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특허청은 명실상부한 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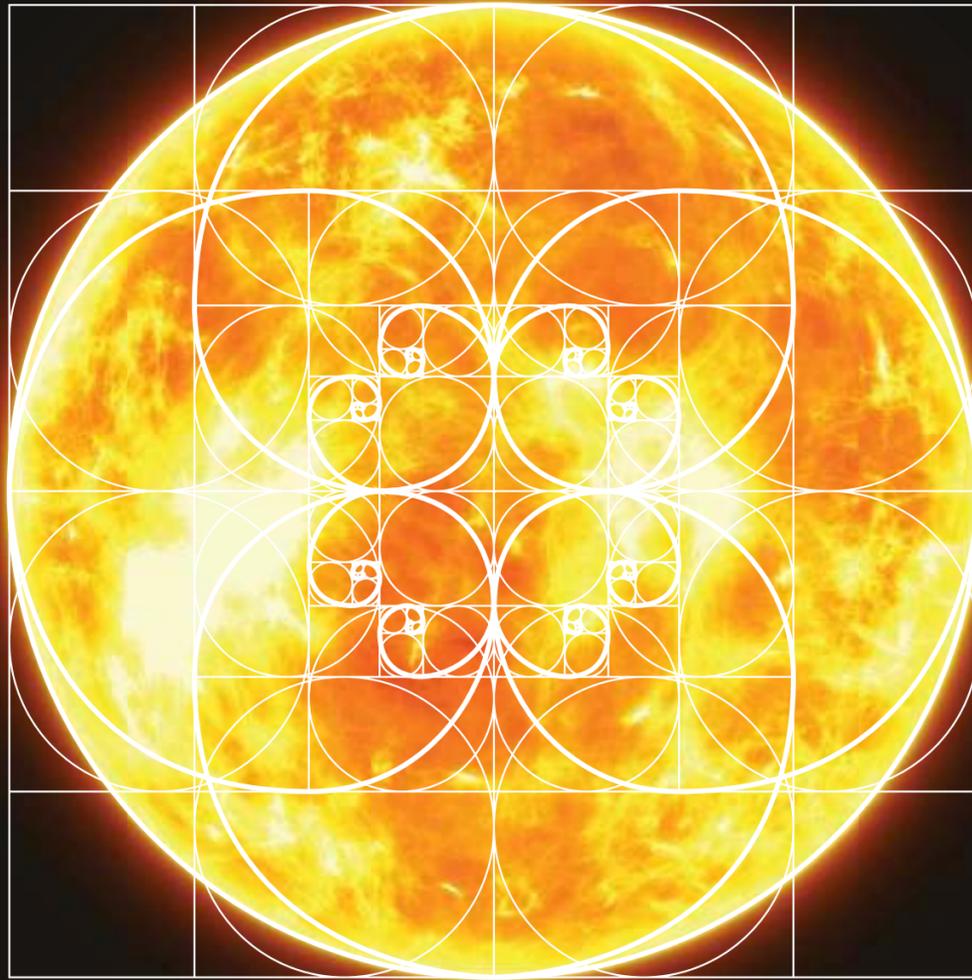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여말림동)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한화는 고갈되지 않는 단 두 가지 자원에 집중합니다 인간의 창의성 그리고 태양에너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누군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에너지빈곤문제
이 거대한 지구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화와 세계는 이미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UN의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춰
77억 명 누구나 더 쉽고 더 편리하게 태양광에너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앞선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지구촌 곳곳의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이 내일도 변함없이 계속되도록
지속가능한 친환경 솔루션을 연구합니다

가장 잘 달린 '폭스바겐'

작년 글로벌 판매 사상 최고... 4년 연속 '세계 1위' 수성 촉각

독일 폭스바겐이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침체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 4년 연속 '세계 1위 자동차 업체'라는 명성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이날 지난해 전 세계 신차 판매 대수가 총 1097만 4600대로 2018년보다 1.3% 증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세계 2위 자동차 시장인 미국을 포함한 북미 신차 판매 대수는 95만 1500대로 전년보다 0.5% 감소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신차 판매 대수도 0.4% 줄어 454만 6300대에 그쳤다.

그러나 폭스바겐 전체 판매의 약 40%를 차지하는 유럽시장에서 3.9%라는 견실한 증가세를 기록, 북미와 아태 지역 부진을 만회할 수 있었다. 유럽 내에서도 본격적인 독일에서의 신차 판매는 136만 4000대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폭스바겐 최대 단일 시장인 중국은 지난해 전체 신차 판매 대수가 2580만 대로 전년보다 8.2% 줄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폭스바겐은 중국 내 판매가 0.6% 늘어난 423만 3600대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완화되면서 작년말 막판 구매가 살아난 영향이다. 작년 12월 폭스바겐의 중국 신차 판매는 전년 대비 16.6% 급증했다.

폭스바겐 2019년 지역별 신차 판매

(단위 : 대) ※출처: 폭스바겐

	2018년	2019년	증감률
북미	95만6700	95만1500	-0.5%
중남미	59만	60만8600	3.2%
유럽	438만700	455만2800	3.9%
아시아·태평양	454만6300	453만100	-0.4%
∴	∴	∴	∴
전 세계	1083만4000	1097만4600	1.3%

브랜드별로는 폭스바겐 승용차가 전 세계에서 전년보다 0.5% 늘어난 627만 8300대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아우디 판매는 1.8% 늘어난 184만 5600대를, 스코다는 0.9% 감소한 124만 2800대를 각각 기록했다. 포르쉐는 28만 8000대 판매로, 9.6%라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차세대 자동차 주력이 될 전기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14만 대가 팔려 전년보다 1.8배 급증했다.

조만간 2018년 2위였던 르노·닛산·미쓰비시자동차 연합과 3위인 도요타자동차가 지난해 신차 판매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폭스바겐이 4년 연속 세계 1위 왕좌를 수성할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도요타는 지난해 2019년 신차 판매가 1072만 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가장 높이 난 '에어버스'

보잉 추월하고 8년 만에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 탈환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유럽의 라이벌 에어버스에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 타이틀을 내줬다. '737맥스' 사태 여파로 2011년 이후 8년 만에 왕좌에서 밀려난 것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작년 항공기 납품 대수가 1년 전보다 53% 줄어든 380대라고 발표했다. 이는 에어버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10일 발표된 에어버스의 2019년 납품 대수는 7.9% 증가한 863대였다.

대형 인명 피해를 낸 두 차례의 737맥스 추락 사고로 인한 운항 정지로 에어버스와의 경쟁에서 전례 없는 패배를 당한 모습이다. 그만큼 737맥스 사태의 심각성이 컸다는 의미다.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 세계에서 운항이 중지된 737맥스 납품이 78% 감소한 57대에 그친 충격이 컸다. 작년 순주문 대수는 54대로 11년 만의 최저 수준이었다.

737맥스 추락 사고는 2018년 10월에 인도네시아에서, 2019년 3월 에티오피아에서 각각 발생했다. 이후 세계 각지에서 운항이 정지됐고, 올해 1월부터는 생산마저 중단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보잉이 737맥스 운항을 중단하면서 매일 10억 달러(약 1조 1600억 원)의 손실이 났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잉·에어버스 2019년 판매 실적

(단위 : 대) ※출처: 블룸버그통신



보잉과 에어버스는 수주 잔량에서도 격차가 크다. 보잉이 5406대인데 반해, 에어버스는 7482대 나 된다.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자 보잉은 최고 사령탑도 교체했다. 지난해 데니스 멀렌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사임했고, 이달 13일 데이비드 캘훈 보잉 이사회 의장이 멀렌버그의 후임에 취임했다.

캘훈은 미국 복합기 업체 제너럴일렉트릭(GE)에서 마케팅과 비행기 엔진을 포함해 교통수단을 개발한 공학 전문가로,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에서 포트폴리오를 총괄한 경험도 가진 경영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이다. 업계는 창사 이후 최악의 위기 속에서 캘훈이 보잉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트럼프 몰(아내)러 나간다~

낸시 펠로시(가운데) 미국 하원 의장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웃으며 받아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펠로시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상원에 제출하는 결의안을 15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무난하게 가결될 전망이다. 이번 주 안에 상원으로 넘어간다. 여당인 공화당은 결의안이 송부되면 탄핵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 21일 재판을 시작하기로 하고 조정에 들어갔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기후변화 논의하면서 개인 제트기? 다보스포럼 참석자들 "고민 되네"

"비행기는 수치"...전세계적 비난에 주최측도 난감...피해 줄이기 총력

오는 21~24일(현지시간) 스위스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열리는 제50회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주최 측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고 CNN이 보도했다. 기후변화를 논하는 자리에 참석자 수천 명이 개인용 제트기나 고급차를 타고 이동하는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서다.

WEF, 이른바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세계 정상급 인사들과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 수장 등 수천 명은 개인용 제트기나 고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는 어느 때보다 주위 시선이 따갑다.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로 인해 'flight shaming(비행은 수치)'이라는 인식이 퍼져서다. 툰베리가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 쓴소리를 날린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인의 민감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툰베리는 지난해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요트로 2주에 걸쳐 대서양을 횡단했다. 지난해 다보스포럼에는 열차를 타고 이동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비행기를 피하기 위해서다.

환경 운동가들에게 비행기는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다. 과학자들은 비행기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등을 뿜어내며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유럽에서 '비행기는 수치' 운동이 확산된 배경이다.

이런 전 세계적인 비난을 의식한 다보스포럼 주최 측은 환경 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최 측은 항공편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구매, 배출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쓰기로 했다. 올해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구매한 배출권은 브라질 아마존의 산림 파괴 복구와 스위스에서 시행 중인 소분묘에서 나오는 메탄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프로젝트 지원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창시자 겸 회장이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인근 콜로니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다보스포럼에는 21일부터 나흘간 전 세계 정재계 리더 3000여 명이 모여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위험, 환경 문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한다. 콜로니(스위스)/로이터연합뉴스

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컨퍼런스센터를 보수해 친환경적으로 재설계했다. 태양광 패널 및 지열 난방 시설을 설치했다. 해초에서 추출한 페인트로 행사장을 꾸몄고, 무대 위 카펫은 재활용 어망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음식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고기와 생선이 없는 메뉴"를 제공한다.

행사장 주변에서 운행하는 셔틀은 88%가 전기나 하이브리드차다. 현지는 휴양지에 스키 리조트 지역이라 겨울이면 눈이 많아 걸어다니기 어렵다. 참석자들의 고급 옷과 신발은 영망이 되기 십상이다. 참석자들은 평소 같으면 전용 리무진이나 특별 셔틀차량을 이용하는데, 각각 사태를 피하고자 기차를 타거나 걷는 사람이 많다. 빙판길에서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넘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김서영 기자 jung2@

MS '윈도7' 지원 종료... PC업계 '교체특수' 기대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용 운영체제(OS) '윈도7'에 대한 기술 지원이 14일(현지시간)자로 완전히 종료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계기로 PC 업계가 한동안 '교체 특수'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에 따르면 MS는 2009년 출시한 윈도7에 대한 기술 지원을 14일 공식 종료했다. 기존 사용자들은 계속 윈도7을 사용할 수 있지만, 15일 이후에는 새로 등장하는 보안 위협과 바이러스에 취약해진다. MS가 관련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아서다.

세계 PC 시장은 1년 전 MS의 윈도7 기술 지원 종료 예고 덕에 반짝 성장을 보였다. 시장조사기관 IDC와 가트너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윈도7 지원 종료 효과로 작년 4분기 세계 PC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4.8% 늘어난 7180만 대를 기록했

다. 지난해 전체로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실적을 웃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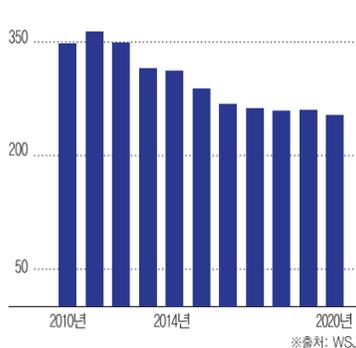
MS의 기술 지원 종료로 컴퓨터 업계는 분주해졌다. PC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레노버와 미국 HP, 델 등 3사가 교체 수요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텔, AMD 등 부품업체들도 기회를 노리고 있다. 특히 AMD는 인텔의 생산 제약 덕분에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다. MS는 현재 클라우드에 주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윈도 OS의 라이선스로 상당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호재가 오래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윈도7에 대한 기술 지원이 공식적으로 끝나면서, 종료 효과가 견인했던 업그레이드 움직임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여서다. 또 작년에는 PC에 대한 추가 관세 발동 우려가 수요를 한층 자극했지만,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의 이루어서

글로벌 PC 판매 대수 추이와 전망

(단위 : 100만 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PC 수요가 감소 국면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트너와 IDC에 따르면 2011년 PC 출하량이 정점에 이른 이후 판매량은 매년 평균 3.7% 감소했다. 김서영 기자 jung2@

카드사 '車 할부금융' 확대... 캐피탈사 밥그릇 넘본다

금융 인사이트

카드사의 자동차 금융 공세가 거세다. 기존 자동차금융 시장은 캐피탈사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카드사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영업을 대폭 확대했다. 다만, 카드사가 중고차 금융시장까지 확대하면서 일각에서는 캐피탈사와 수익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10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상품 종류 출시 논의 단계지만, 다른 카드사 상품과 유사하고 중고차보다 신용 위험이 적은 신차 대상 상품 출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카드가 자동차금융 시장에 뛰어든다면 현대카드와 BC카드를

하나카드, 10월 목표 상품 준비
국민카드, 중고차 특화지점 개설

수수료 수입 감소분 보전 이유
신차 중심서 중고차로 영역 확대
업계 "할부금리 낮아 수익 의문"

제외한 모든 카드사가 자동차금융 상품을 운용하게 된다.

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수익 증가율은 캐피탈사의 두 배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수익은 2015년 930억 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825억 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수익은 2017년



1242억 원, 2018년 1623억 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캐피탈사 자동차 할부금융 수익은 2017년 5939억 원, 2018년 6402억 원, 2019년 9월 6978억 원으로 조사됐다. 2017년 대비 수익 증가율은 카드사가 47%로 캐피탈사(18%)보다 두 배 이상 컸다.

카드사는 신차 중심의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서 이익을 거두자 중고차 시장

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8일 중고차 할부금융 특화 영업점인 '오토 금융센터'를 열었다. 이곳은 차량 매매부터 할부 금융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카드에서 중고차 금융 서비스를 받으면 소비자는 캐피탈사보다 금리 측면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며 "은행은 대출 개념이므로 카드

사를 이용하는 것이 편의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부분 금융지주는 카드사와 함께 캐피탈사를 운영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사업영역이 겹치지만, 카드사에 자동차 금융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카드사 수수료 수입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에 따라 수익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카드사 수익 창출과 장기적인 캐피탈사와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자동차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자동차 할부 금리가 급격히 낮아져 3% 수준까지 내려왔다"며 "카드사의 '교육지책'이지만 큰 수익을 올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치매보험 가입 '136만건' 2년새 6배 급증

단독형 상품 비중 8% → 78%
50대, 월납보험료 66만원 '최다'

지난해 상반기 신규 치매보험 가입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담보를 전용으로 하는 단독형 상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한국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신규 치매보험 가입 건수는 136만2000건으로 2년 새 6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전체 치매보험 보유계약 건수 462만 건 가운데 29%를 차지했다.

보험사들이 치매를 단독으로 보장하는 상품들을 줄이어서 내놓으면서 단독형 상품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에 머물던 치매 단독형 상

치매보험 신규 및 보유계약 건수
(단위: 만 건)



품이 2018년 52%, 지난해 78%까지 늘었다. 이러한 추세는 공적보험의 중증진단비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중증진단비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단독형 치매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 보유 개수는 7.2개로 가장 많은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어 60대(6.4개), 70대(4.9개) 등 고령자로 갈수록 보유 개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 평균 월납보험료도 50대가 가장 높았다. 50대 단독형 치매보험 가입자의 평균 월납보험료는 66만 원으로 60대 48만 원, 70대 28만 원에 비해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원은 50대 치매보험 가입자가 보험가입 여력이 충분한 소비자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경 한국신용정보원 조사역은 "고령층이 치매 보험에 가입 시 금융 이해력이 낮아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적합한 상품인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약관의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지연 기자 sjy@

신한생명, 고객 위한 진심... 브랜드 '진품' 론칭

신한생명은 주력 상품군의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한 '진품'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했다고 15일 밝혔다.

'진품'은 '진심을 품다'의 줄임말로 고객에게 전하는 진심을 뜻하는 동시에 사전적 의미의 '진짜 물품'이라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이번 브랜드 론칭을 위해 신한생명의 대표 상품들이 개정 출시됐다. 지난해 5월 출시돼 주목을 받았던 '진심을 품은 중신보험'의 주요 보장 기능인 '올페이급여금'을 브랜드 콘셉트로 만들어 주력 상품군에 선택 특약으로 탑재했다.

'올페이급여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후 납입할 보험료'를 더해 진단금을 보장받는 형태로 상품 가입시 약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의 보험료 총액을 치료비로 모두 지급받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진품' 콘셉트의 특약이 탑재된 상품은 총 5종으로 '진심을 품은 중신보험', '진심을 품은 변액중신보험', '진심을 품은 착한 보장보험', '진심을 품은 또다른 생활비보험', '진심을 품은 참좋은 암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서지연 기자 sjy@

전략기획단 투자관리자(MD) 초빙 공고

전략기획단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에 의거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산업기술 R&D 관련 투자·기획, R&D 혁신정책 제언 등 업무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기술 R&D 지원체계 효율화와 국가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우수한 기술개발 투자관리자(MD: Managing Director)를 모집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략기획단은 지난 공고를 통해 기술정책 MD 후보를 모집한 바 있으나, 금번 공고를 통해 후보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 1. 채용분야**

채용분야	수행업무	직위
기술정책MD	· 산업기술 R&D 및 기업역량제고 정책 발굴 · R&D 성과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시 · 산업 분야별 연계·융합 방안 검토·마련 · 기업 금융·투자 정책 방향 제시 등	기술개발 투자관리자 (MD: Managing Director)
소재부품MD	· 소관 산업분야 사업기획 및 예산 확보 · 소관 산업분야 R&D 투자방향 설정 및 주요 투자대상 발굴 · 소관 산업분야 산업부 R&D 예산 배분 · 소관 산업분야 산업부 R&D 사업 성과 평가 · 소관 산업분야 규제 개선 발굴	
- 2. 채용 인원 : 총 2명**
- 기술정책MD, 소재부품MD (각 1명)
- 3. 근무조건 및 응시자격**
가. 고용형태 및 임기: 계약직, 임용일로부터 2년(심사 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나. 보수: 기본급(1.23억원) + 차등성과급(기본급의 100% 이내(제세금 포함))
다. 응시자격: 소관분야 전문지식과 산업경험이 풍부한 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 기업경영이나 기업 연구소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기술·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버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복지: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개별 통지)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면접전형 결과 개별 통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5. 제출방법기한 및 제출처**
가. 제출방법: ① 방문 또는 ② 등기우편, ③ 이메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
나. 제출기한: 2020. 1.16(목) ~ 2020. 1.29(수) 18:00까지
※ 이메일 제출은 지메일서명 후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제출(접수여부 유선확인 필요)
※ 방문제출 시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다. 접수 및 문의처
- 전자우편(E-MAIL): recruit@keit.re.kr
- 전화번호: 02-6009-8772
- 방문 및 등기우편: (우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8층 전략기획단 총괄지원실
- 6. 제출서류**
(1)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
가. 지원서·이력서(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소정양식, A4용지 3매 이내)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A4용지 3매 이내) 1부
※ 소정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eit.re.kr) 참고
(2)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 서류(2차 심사일 당일 제출, 심사일은 추후 안내)
가. 기본증명서 1부(소제지 등사무소 발급가능)
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
라. 기타실적증명
- 7. 유의사항**
가. 공모와 함께 산업기술유관기관 추천도 병행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비밀을 보장·기밀사항 수정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략기획단 MD 추천위원회 (전략기획단, ☎02-6009-8772)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eit.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1. 16.

전략기획단 MD 추천위원회 위원장

가혹한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힘겨운 삶에 지친 이들을 위한 철학 처방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철학이란,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 속에만 있다"

소권우, 허세, 조로주, 윈드, 장 지크 루소, 버트랜드 러셀
역사 속 철학자와 문리학의 삶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의 제자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써내려,

결정을 바탕으로 최근 사람들 이야기

312페이지 | 14,000원

출판사 Baram Books | 편집 디자인 | 인디고출판사 | 책세상

반도체 실적 부진에...삼성만 성과급 반토막?

(OPI·초과이익분배금)

지난해 영업의 급감 영향
반도체·디스플레이·가전
목표 달성 장려금은 유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삼성전자가 올해는 대폭 줄어든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4분기부터 실적이 꺾이기 시작한 탓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성과급 개념의 OPI(초과이익분배금)를 이달 31일 지급할 예정이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1년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어서었을 때 초과이익의 20% 한도 안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를 지급하는 것이다.

2017년과 2018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면서 2년 연속 연봉의 50%를 받은 반도체 부문은 올해 OPI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에서는 반도체 부문의 OPI 규모가 20%에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삼성 반도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14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44조 5700억 원)의 30%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의 성과급은 OPI와 TAI(목표 달성장려금)로 구성된다. TAI는 매년 상·하반기 실적을 토대로 차등 지급하며, 최대치는 월 기본급의 100%다.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반도체 사업부와 소비자가전,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에 최대치인 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 것

삼성전자 성과급		SAMSUNG
TAI(목표달성장려금)	- 매년 상·하반기 실적 토대로 차등 지급. 최대치 월 기본급의 100%	
특별 상여금	- 사업부별 성과 따라 기본급 100~500% - 작년·재작년 역대급 실적 거둬 이례적 지급	
OPI(초과이익분배금)	- 초과이익 20% 한도 내 개인 연봉의 최대 50%	

으로 알려졌다. 5G 장비 등을 다루는 네트워크 사업부는 75%, 스마트폰 관련 무선 사업부는 50%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부와 무선 사업부의 OPI 규모도 다른 부서에 비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부문이 연봉의 20% 수준으로 성과급을 받게 되면, 네트워크와 무선 사업부는 이보다 더 적게 받을 수 있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례적으로 지급됐던 특별상여금도 올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2017년과 2018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며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기본급의 100~500%에 달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8년 4분기부터 반도체 업황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축소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분기별 영업이익은 1분기 6조 2300억 원, 2분기 6조 6000억 원, 3분기 7조 7800억 원으로 10조 원을 밑돌았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도 27조 7100억 원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영업이익 26조 4100억 원) 수준이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전년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다행히 반도체 업황 회복 조짐과 함께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은 회복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매출 59조 원, 영업이익 7조 1000억 원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6조 5000억 원)를 훨씬 웃돈 것이다.

삼성전자의 실적 반등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투자를 미뤘던 구글, 아마존 등 클라우드 업체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업황 본격 회복과 5G 시장 확대에 힘입어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사상 최대를 찍었던 2018년 실적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성과급 규모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SEEDRAM (SEED+D램) SK하이닉스 'D램 자체 브랜드' 시동

지난달 '씨디램' 상표권 출원
3위 마이크론과 격차 벌리기
SK "사용처 아직 확정 안 해"

SK하이닉스가 D램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며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특허청에 'SEEDRAM(씨디램)'이란 상표권을 출원했다.

업계에선 SK하이닉스가 이번 상표권을 활용해 D램 자체 브랜드명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SEEDRAM'은 'D램을 보다' 혹은 '씨앗'이란 의미의 'SEED'와 'D램'을 합친 용어라고 해석된다.

SK하이닉스 제품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지닌 분야가 D램인데, 강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자체 브랜드로 영업력을 높일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D램은 SK하이닉스의 캐시카우(수익창출원)다. 전체 매출에서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75%가 넘는다. 또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낸드 부문을 대신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점유율에서도 지난해 3분기 기준 28%로 삼성전자(46.1%)에 이어 전

세계 D램 시장 2위를 수년째 지키고 있다. 3위는 마이크론으로 점유율 19.9%다. 업계 관계자는 "D램 분야에서 현재도 강한 SK하이닉스이지만,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업그레이드로 마이크론 등 경쟁 업체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마이크론은 게이밍 메모리 브랜드 '발리스틱스'를 내세우고 있고,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엑시노스' 등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 중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블랙펄'이란 이미지센서 브랜드를 만드는 등 자체 브랜드를 통한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향후 활용하기 위해 미리 상표권을 출원했다"며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2세대(1Y) 생산 비중을 지난해 말 10% 초반으로 높였다. 최근 개발한 10나노급 3세대(1Z) 공정을 적용한 제품의 양산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TV 5에 게재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15일 첫 번째 SUV 'GV80(지브이 에이티)'을 공식 출시했다. 사진은 GV80의 실내 모습.

사진제공 현대기아차

제네시스 GV80, 고객 맞춤형 시스템 구성

3세대 플랫폼·별도 제작 엔진
옵션 조합 따라 10만 가지 선택
6580만원부터... "더 편안하게"

15일 선보인 제네시스의 첫 SUV GV80은 여러 면에서 이전 제네시스와 꺾을 달리한다.

먼저 차의 뼈대인 플랫폼이 진화했다. 2008년 첫선을 보인 현대차 제네시스(BH)가 1세대 후륜구동 플랫폼이다. 이어 2015년 브랜드 출범과 함께 선보인 G80이 2세대다.

첫 번째 SUV인 GV80은 가장 진보한 3세대 후륜구동 플랫폼이다.

제네시스는 GV80 출시와 함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엔진 △클림방식 △컬러

△흡션 패키지 등 차량을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는 '유어 제네시스(Your Genesis)'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10만 가지가 넘는 GV80을 고를 수 있다. 트림별로 옵션을 차별화하는 게 아니다. 기본가격 6580만 원을 시작으로 갖가지 옵션을 더하는 방식이다. 편의 장비를 가득 채우면 차 가격은 9000만 원에 육박한다.

디자인은 커다란 5각형 프론트 그릴도 제네시스 엠블럼의 중앙 5각형을 고스란히 옮겨왔다. 이 모습은 다음 세대가 아닌, 앞으로 제네시스의 상징이 될 전망이다.

실내는 여백의미를 충분히 살렸다. 현대차그룹의 새 모델을 통틀어 가장 큰 사이즈의 중앙 디스플레이는 14.5인치에 달한다. 변속기 레버는 다이얼 방식으로 바

뀌어서 손으로 쉽게 돌려가며 전진과 후진을 고를 수 있다. 엔진은 직렬 6기통 3.0리터 디젤을 얹고 최고출력 278마력을 낸다. 같은 배기량의 BMW 30d(265마력), 메르세데스-벤츠 350d(272마력)를 앞선다. 새로 선보인 직렬 6기통 3.0 디젤 엔진은 유일하게 제네시스 GV80에만 장착된다. 그만큼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현대차 역시 제네시스 GV80의 다양한 옵션과 편의 장비, 기술 등을 강조하면서 수익성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GV80에는 중전 SUV와 차별화된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전 및 편의 사양들을 담아 고객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자신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더 똑똑하고 깔끔해진 삼성 '2020년형 무풍에어컨' 에어컨 속까지 확 열어서 청소해요

누구나 손쉽게 전면패널 분리
습기 없애는 3단계 자동 청소
벽걸이형도 AI 음성인식 도입

삼성전자가 냉방 성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능이 향상된 에어컨 신제품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15일 서울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2020년형 무풍에어컨과 공기정정기 무풍큐브를 공개했다.

삼성 무풍에어컨 신제품에는 이지케어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지케어 기능이 적용된 신제품은 별도의 도구 없이 전면패널 전체를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소비자가 내부 팬 블레이드까지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 열교환기를 동결시킨 후 세척하는 기능도 적용했고, 에어컨 가동을 종료할 때마다 남아있는 습기를 없애는 3단계 자동 청소 건조 기능을 갖췄다.

스탠드형뿐만 아니라 벽걸이형에도 빅스비를 적용한 음성인식 기능이 도입됐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삼성 무풍에어컨 갤러리는 소비자 취향과 맞게 외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제품 하단부의 아트패널을 향상했다. 브라운, 그레이의 본체 색상에 아트패널 9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무풍에어컨 갤러리는 이 밖에도 △냉기를 더 풍성하게 내보내는 '와이드 무풍 냉방' △냉기를 더 멀리 확산시켜 주는 '서큘레이터 급속 냉방' △소비자가 집 근처에 오면 에어컨을 동작시킬지 묻는 '웰컴콜링' 등이 도입됐다.

삼성 무풍에어컨 벽걸이 와이드는 기존 스탠드형 제품에 적용된 와이드 무풍 냉방



기능을 지녔다. 에어컨과 같이 공개된 프리미엄 공기정정기 무풍큐브는 전기적 성질을 활용한 별도의 장치 없이 필터만으로도 99.999% 수준의 집진 효율을 구현한다.

스마트싱스와 AI기술을 통해 △실내 공기질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품 작동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청정'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집에 도착하기 전 미리 청정기능을 수행하는 '웰컴케어' 등을 구현했다.

2020년형 무풍에어컨은 17일 출시된다. 무풍에어컨 갤러리는 냉방면적(56.9~81.8㎡), 벽걸이형 제품 구성 개수에 따라 출고가 기준(설치비 포함) 345만~720만 원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기아차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내일 조합원 투표

기아자동차 노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9차 본교섭에서 극적으로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잠정안을 바탕으로 17일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찬반투표에 나설 계획이다.

15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 양측이 합의한 2차 잠정합의의 골자는 △사내복지기금 10억 원 출연 △휴무 조정(3월 2일 근무→5월 4일 휴무로 조정해 6일간 연휴) △잔업 관련 노사공동 TFT 운영 합의 등이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10일 1차 잠정 합의 때 △기본급 4만 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150% 30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사회공헌기금 30억 원 출연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신차의 적기 생산 및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지갑을 깜빡해도 걱정없이
손만 대요

통장, 도장, 신분증 필요없이
손만 써요



이제부터 은행 갈 땐 간편하게
손만 챙겨요



[손으로 출금 서비스]
손바닥 정맥 인증 창구 출금 서비스

손으로 출금 서비스로 당신의 일상이 편안해집니다

누리세요, KB가 만드는 새로운 금융생활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b KB 금융그룹**

백기사 델타항공 '전략적 투자' 강조...복잡해진 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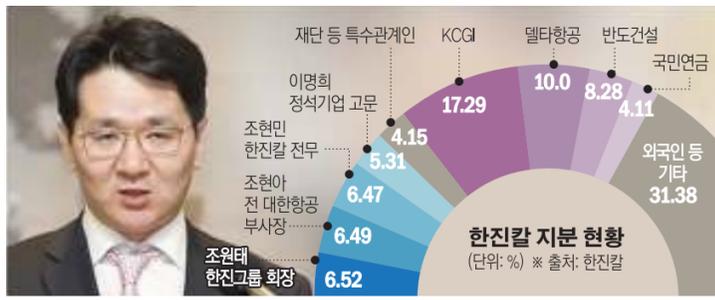
한진칼 3월 주총 시나리오

한진 총수 일가의 운명이 갈릴 3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을 셈법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에 백기사로 확실시 됐던 델타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지분에 대해 또 한 번 '전략적 투자'임을 강조하며 선긋기에 나서 새로운 변수도 추가됐다.

델타항공은 대한항공과 20년간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현재는 조인트 벤처(JV) 등 제휴를 맺고 있어 당연히 한진가 우호지분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재차 '전략적 투자'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 자칫 반대세력으로 재그룹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델타항공은 14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식 발표하면서 "지난해 다양한 전략적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중 하나가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에 대한 지분 투자"라면서 "이는 잉여현금흐름 창출과도 관련된 투자"라고 언급했다.



- ① 델타·KCGI·국민연금 '삼각동맹' 맺고 총수일가 위협
- ② 조원태 회장, 일부 경영권 가족에 넘겨 사내이사 재선임
- ③ 일감 수주 노린 반도건설, 조원태 회장에게 힘 실어주기

델타항공이 지난해 6월 한진칼 지분 4.3%를 매입하면서 대외 발표한 내용을 재차 공식화한 셈이다.

이에 따라 델타항공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10%)이 그동안 끊임없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압박해 온 행동주의 사모

펀드 KCGI(17.29%)와 손잡으며 총수 일가를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사외이사 추천 시도와 대한항공 재무구조 개선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려온 KCGI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우호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 회사의 지분을 합하면 27.29%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6.52%) 등 총수 일가 및 특수관계인 지분(28.94%)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여기에 5대주주인 국민연금(4.11%)까지 반대세력에 가세할 경우 30%를 훨씬 웃돌게 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직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며, 조 회장의 재선임 실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근 한진칼 지분을 8.28%까지 올리며 '캐스팅보트'로 급부상한 반도건설의 움직임도 변수다. 조 전 회장과는 친분과 함께 향후 추가될 수 있는 한진그룹 일감 수주를 고려하면 조원태 회장 측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다만, 이는 3월까지 조원태 회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의 갈등을 봉합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명희

고문(5.31%)을 비롯해 조현아 전 부사장(6.49%)과 조원민 한진칼 전무(6.47%)의 지분율을 합치면 18.27%에 달한다.

총수 일가의 갈등이 일단락되고 힘을 합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며 최소 3년 동안 한진그룹 지배구조는 안정화 수준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이 그룹 총수직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족에게 일부 계열사 경영권을 넘기거나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등을 약속할 수 있다. 아울러 3대주주인 델타항공과의 협력 강화, 4대주주 반도건설에 일감 제공 등도 병행될 수 있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같은 가능성들은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면서 "얕혀 있는 주주의 이해관계로 지분 확보 경쟁이 지속되며 3월 주주총회까지 불안정한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SULFATE(황산염)·함성색소·인공향
함성방부제·실리콘오일

5
無
첨가

Pure of Love.

**내 아이 만큼은
깨끗하게 사랑하세요**

좋은 것을 먹는 것 만큼
좋은 샴푸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연의 착한 성분만을 담은 오무오무로
건강한 반려생활을 시작하세요

Pure of Love.
omu omu
www.omuomu.co.kr

15주년 제주항공, 아시아나 바짝 쫓는다

22일 기념식서 전략설명회 이스타항공과 시너지 주목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 1위인 제주항공이 25일 창립 15주년을 맞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창립 15주년을 맞아 22일 기념식을 연다. 이날 기념식에서 제주항공 경영진은 이스타항공 인수 작업 현황과 향후 제주항공의 전략과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2005년 1월 애경그룹과 제주도의 공동 출자로 설립됐다. 그해 8월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으며 이듬해 6월 5일 제주~김포 노선에 취항하며 첫 날갯짓을 시작했다. 현재 50개 도시에 88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 근무하는 임직원도 3350여 명으로 꾸준 성장 중이다.

제주항공은 실적에서도 경이로운 모습을 보였다. 2008년 진에어, 이스타항공을 시작으로 줄줄이 탄생한 저비용 항공사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매출을 기록했으며, 2017~2018년에는 2년 연속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2011년 8대에 불과했던 항공기 수는 현재 45대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순탄해 보였던 성장세는 지난해 한풀 꺾였다. 항공업계를 잠식한 공급과잉 문제와 일본 노선 수요 감소 탓이었다.

제주항공은 성수기인 지난해 3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누적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항공은 항공사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HDC현대산업개발에 밀려 우선협상권을 뺏겼다.

이후 지난달 18일 돌연 이스타항공 인수 소식을 전했고 현재 실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두 항공사의 시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양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지난해 3분기 국제선 기준 19.5%로 2위 항공사 아시아나항공(23%)을 바짝 뒤쫓는 3위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두 항공사의 중복 노선을 정리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과 함께 외항사와의 인터라인 협정 등 수익성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보여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스타항공의 재무구조 개선은 향후 제주항공이 인수 시너지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18년 말 기준 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률은 47.9% 수준으로 지난해에는 더 악화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송 기자 kissong@

아시아나, 예약부터 기상 분석까지 AI 활용

정보 분석 효율성 80% 향상

아시아나항공이 고객 안내 및 예약, 항공기 운항 환경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11월 국내 항공사 최초로 인공지능 챗봇 아론을 선보였다.

아론은 지난해 49만2461명이 이용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이용자가 300%가 증가한 수치다. 아론 이용자들은 한국어·영어·중국어로 다양한 플랫폼(모바일 홈페이지, 모바일 앱, PC, 카카오톡, 페이스북, RCS, 위챗)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예약 발권 등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을 이용해 항공 정보를 분석하는 'Wind-AI'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루 1만 건이 넘는 세계 각국 항공시설, 업무 및 절차 변경 등의 정보와 기상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류, 분석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 제공하고 있다.

기상으로 인한 회항이 10%가 줄었으며, 예기치 않은 취항지 기상 변경이나 여러 제한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전파해 운항 규정 위반 가능성을 대폭 낮췄다.

또한 기존에 개인이 많은 양의 정보를 개별 분석하던 작업을 AI가 대신하면서, 정보 분석의 효율성이 70~80%가량 향상됐다.

김기송 기자 kissong@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정책 선순환 토대 만들겠다”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

‘IT산업 정책단’ 조직화 통해 O2O·온라인 시장 적극 대응 ‘배민’ 합병 시장 독과점 우려 소상공인 피해 방지에 최선

박영선 “올해는 소상공인의 해 4차 산업혁명 선도자 돼주길”



박영선(가운데) 중기부 장관과 최승재(오른쪽)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5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건배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제공 소상공인연합회

“O2O 시장 및 온라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IT산업 정책단’을 조직화 해나갈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5일 ‘2020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등이 참여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이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돼 소상공인이 독립적인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됐다”며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이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명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잘것없는 작은 물방울 한 방울이 결국에 바위를 뚫는다”는 ‘수적전석(水澗穿石)’의 각오로 올 해를 소상공인 정책 선순환의 토대를 다지는 한 해로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최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을 줄기 다양한 육성과 보호 정책이 가지를 뻗어갈 수 있도록 하는 후속입법과 대책이 명확히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하고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배달의민족 합병 건으로 촉발된 독과점 문제와 수수료 인상 우려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배달의민족 합병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 간 기업결합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냈다. 두 회사가 인수합병 할 경우 국내 배달 앱 시장의 95%가량을 독점하고, 그

뒤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020년이 소상공인의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진 2020년도 중기부 정책방향 발표에서 박 장관은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 창업벤처는 스마트 서비스 구축,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보급을 통해 ‘스마트 대한민국’을 이루겠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들도 연결된 힘을 바탕으로, 관정의 이동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지난해 본예산 대비 53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인 3조 1500억원으로 늘었다”며 “기본법과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는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국내 첫 엑스박스 개발자 행사 SKT-MS ‘초협력’ 이어간다

게임스트리밍 이어 개발 등 협력분야 확대

업체 관계자 100여명 참가

SK텔레콤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엑스박스(Xbox)개발자 행사를 개최하고, 양사간 ‘초(超)협력’을 확대한다.

이번 양사간 엑스박스 개발자 행사 협력은 지난해 10월 엑스박스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하는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Project xCloud)’ 시범 서비스에 이어, 게임 개발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1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열리는 엑스박스 개발자 행사(Xbox Discovery Day)를 후원하고, 게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게임 사업 제휴 모델 및 계획 등을 설명했다.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의 한국내 독점 사업 운영 파트너인 SK텔레콤은 이번 행사에 전진수 5GX서비스사업본부장(클라우드게임 사업담당 겸임)이 참여해 국내 게임 개발자들에게 게임 분야 사업 계획 등을 설명했다. ‘엑스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콘솔(가정용 게임기) ‘엑스박스(Xbox)’의 고화질·대용량 게임을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설치 없이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 기술이다. 양사는 지난 10월부터 SK텔레콤의 5G·LTE 고객 체험단에 ‘엑스클라우드’를 시범 서비스 중이다.

전진수 사업담당장은 향후 게임 개발



엑스클라우드를 통해 클라우드 게임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제공 SK텔레콤

을 위해 양사간 공동 투자를 확대하고, 게임 개발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박스 개발자 행사는 엑스박스 게임 개발자는 물론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위한 세미나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내에서 개최한 첫 엑스박스 개발자 행사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독립 비디오 게임 개발자들이 스스로 윈도와 엑스박스에서 구동되는 게임을 퍼블리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D@Xbox’ 프로그램, 엑스박스 구독 서비스인 ‘게임 패스’(Game Pass),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믹서’(Mixer), 엑스박스 개발자 등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엑스박스 게임 콘텐츠 제휴담당인 아그네스 김, 인디 개발자들을 위한 ID@Xbox를 담당하는 아고스티노 시모네타, 글렌 그레고리 등이 참석했다. 국내 대형 게임사 관계자들은 물론 독립 게임 개발자들 100여명 이상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재훈 기자 yes@

“설 대목 잡아라”... 주방용품 업계 ‘할인전쟁’

락앤락, 저장용기 최대 70% 할인 삼광글라스, 이달까지 ‘설렘특가전’ 휴롬, 원액기·티마스터 50% 싸게 PN풍년, 첫 온라인 창고개방 행사

주방용품 업계가 설을 겨냥해 할인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설날을 맞아 주방용품 업계가 대규모 할인행사에 나섰다. 밀폐용기, 테이블웨어 등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 대목을 잡기 위해 업체들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하고 공격적인 할인 경쟁에 한창이다. 락앤락, 삼광글라스, 코맥스 산업, 타파웨어 등 밀폐용기를 주력으로 삼는 업체들에 더해 휴롬, PN풍년 같은 주방가전 업체들도 가세했다.

락앤락은 이달 27일까지 락앤락의 라이프스타일 매장 플레이스엘엘을 포함한 전국 27개 직·가맹점과 온라인 자사몰인 락앤락몰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설 선물대전과 주방용품 모음전인 ‘명절 대첩’ 두 가지 콘셉트로 최대 70% 할인에 나선다.

‘설 선물대전’은 락앤락의 베스트셀러 저장 용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디자인이 돋보이는 ‘비스프리 시리즈’와 냉장고 정리에 유용한 ‘비스프리 모듈러’, 잡곡 보관에 좋은 ‘인터락’ 등 총 40여 개 상품이 대상이다. ‘명절 대첩’에서는 저장용품부터 조리용품, 수납 및 생활용품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 공식몰에서 31일까지 설맞이 ‘설렘특가전’을 실시한다. 글라스락 베스트 인기 밀폐용기, 명절 선물세트, 프리미엄 쿡웨어 등 총 20개 품목에 최대 67% 할인 혜택을 적용해 판매한다. ‘글라스락 클래식 화이트 에디션’을 3종부터 10종까지 알뜰세트로 구성해 최대 49% 할인한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코맥스산업은 17일 공영홈쇼핑에서 ‘하이킵스 트라이탄 밀폐용기 세트’ 방송을 실시한다. 방송에서 선보이는 구성은 ‘하이킵스 트라이탄 밀폐용기 세트’ 15종과 원형 디자인으로 냉장·냉동실 도어포켓(door pocket) 정리에 제격인 ‘데이킵스 도어포켓용기 세트’ 6종이다. 코맥스 관계자는 “밀폐용기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코맥스의 베스트셀러 밀폐용기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 풍성한 구성으로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타파웨어는 프리미엄 냉동실 정리 용기 ‘팬진 시리즈’ 전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2월 1일까지 실시한다. 팬진 시리즈 중 동일 제품 2개 구매 시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타파웨어의 팬진 시리즈는 냉동실 안 저온에서 밀폐되는 냉동 전용 용기다. 용기 하단의 공기 순환 통로로 냉동이 빠르게 된다.

휴롬은 공식쇼핑몰에서 휴롬 원액기와 티마스터를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에 나선다. 이달 20일까지 휴롬 공식쇼핑몰 ‘휴롬샵’에서 원액기 휴롬원더와 휴롬엣지, 티마스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휴롬원더는 정가 대비 41%, 휴롬엣지는 19%, 티마스터는 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PN풍년은 이달 20일까지 온라인 창고개방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그간 안산 본사에서만 시행해왔던 창고개방을 온라인 몰로 확장한 것이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마카롱택시, 180억 ‘시리즈A’ 투자유치 완료

작년 현대기아차 50억에 이어 NHN으로부터 50억 투자 받아 페이코 등 서비스 협력모델 확대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NHN으로부터 50억 원의 전략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KST모빌리티는 총 18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유치를 완료했다.

KST모빌리티의 시리즈A 투자 유치에는 NHN 외에도 지난해 현대기아차가 50억 원을 투자하며 참여했다. 재무적투자자로는 다담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열림파트너스 등 다수의 투자자들이 80억 원 규모로 참여했다.

KST모빌리티는 이번 시리즈A 투자유치 외에도 지난해 네오플라이로부터의 시드 투자금 50억 원을 유치한 바 있다.

KST모빌리티는 총 2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KST모빌리티는

이번 투자에서 확보한 자금을 통해 마카롱택시 사업 인프라와 서비스 협력 모델 확대, 마케팅 강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 기술 고도화 등을 진행해 시장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NHN 전략투자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협력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NHN은 IT기술을 중심으로 페이코, 벅스, 한게임, 티켓링크, TOAST, 1300K, 여행박사 등 핀테크, 엔터테인먼트, 게임, 커머스, 클라우드, 광고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폭넓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시리즈A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택시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즐거운 서비스 거점으로 혁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이번에 전략투자를 유치한 NHN과 함께 한

한 변화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月 5만 원에 매일 빵 하나” 신세계도 구독경제 서비스

정가의 1/3 가격 수준... 영등포점 시작으로 쏠점포 확대 고려
유통 경쟁 심화에 '록인 효과' 기대 홈쇼핑·편의점 등 잇달아

“한 달에 5만 원만 내면 매일 빵 하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영등포점 식품관에 위치한 ‘메나주리’ 베이커리와 협업해 빵 정기 구독 서비스를 내놨다. 베이커리에서 5만 원을 내면 한 달간 인기 제품 5종 중에 1개를 매일 가져갈 수 있다. 5종의 빵 1개당 가격은 4200~5500원으로, 30일 동안 매일 빵을 구독할 경우 정가의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구독경제 서비스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초창기 ‘정기구독’ 서비스는 주로 스타트업계가 신선식품 배송 등에 사용했지만, 최근 들어 홈쇼핑과 편의점, 백화점 등도 서비스에 발을 들여 놓고 있다. 대상 제품군도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 ‘렌탈형’에서 커피와 생리대, 반찬, 빵 등 일상 제품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내고 정한 시간과 금액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건을 배송받는 서비스다. 최근 유통업계가 속속 서비스에 나서면서 시장 역시 커지고 있다. 미국 크레디트스위스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구독경제 시장 규모가 2020년 5300억 달러(약 632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 화장품 신제품이나 샘플 정기 배송을 시작한 ‘미미박스’를 모태로 보고 있다.

쿠팡도 정기배송 서비스를 통해 시장에 뛰어 들었다. 생필품을 중심으로 정기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쿠팡은 정기배송 상품을 한 개 신청하면 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3가지 이상 서로 다른 상품을 동일한 날에 받도록 하면 10% 할인을 적용하며 고객을 모았다.

최근들어 유통 공룡들 역시 구독 서비스



신세계백화점은 15일 업계 최초로 베이커리 월정액 모델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온·오프라인 경쟁이 심화되면서 온라인으로 고객이 이동하지 않게 자물쇠를 잠그는 이른바 ‘록인(Lock in)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다. 고객

정보 관리가 용이하고,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문은 롯데가 열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 가정식 반찬 판매업체 ‘라운드키친’과 함께 맞춤형 반찬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며 백화점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구독 서비스에 발을 내디뎠다. 김치류와 볶음류, 국류, 조림류로 약 200여 품목이 대상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에만 10%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신세계의 ‘빵’ 구독 서비스는 백화점 업계에서는 두번째 사례인 셈이다.

홈쇼핑도 가세했다. CJ오쇼핑은 지난해 5월 TV홈쇼핑 업계 최초로 정기 배송 사업에 나섰다. 이 회사가 처음으로 정기 배송을 결정한 상품은 신소재인 ‘나노 멤브레인’을 사용해 통기성을 높인 ‘에어퀵 생리대’다. GS홈쇼핑 역시 사과와 자두, 복숭아 등 제철 과일과 김치를 정기 배송해주는 ‘달달마켓’으로 뛰어 들었다.

전국 방방곡곡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점포 수를 자랑하는 편의점 역시 구독경제

사업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 GS25는 지난해 7월 한 달 간 ‘카페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며 가능성을 엿봤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구독경제 상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구독 경제는 한 번 신청해 놓으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업체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꿀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정기배송 특성상 소비자가 곧바로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해 2015년 쿠팡은 기저귀 정기배송 25% 할인 행사를 진행한 후 얼마 뒤 10%로 할인 폭을 낮추고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소비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업체는 정기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윈윈 효과가 있는 만큼 구독경제 서비스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우선 영등포점에 빵 구독 서비스를 운영해본 후 전 점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현대백화점 ‘전자 영수증’ 서비스

현대백화점 직원이 15일 경기 고양시 현대백화점 킨텍스점에서 전자 영수증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15일부터 백화점 3곳(판교점, 디큐브시티점, 킨텍스점)과 아울렛 2곳(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등 각 매장에서 상품 구매 시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 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패션 본고장’ 가는 한섬 시스템·시스템옴므

파리 패션위크 3회 연속 참가
해외시장 전용 제품 개발 나서

한섬이 시스템·시스템옴므의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낸다. 파리 패션위크에 3회 연속 참가하기로 한 데 이어 해외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제품 개발 전략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은 ‘2020년 F/W 파리 패션위크’에 자사의 캐주얼 브랜드 ‘시스템·시스템옴므’가 동반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토종 패션브랜드로는 최초로 한섬의 남녀 패션브랜드가 3회 연속 참가하게 된다.

파리 패션위크는 글로벌 4대 패션쇼 중 하나로,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가 모두 참가하는 행사다. 한섬은 16일 파리 16구에 있는 복합예술문화 공간인 ‘팔라데 도쿄(PALAIS DE TOKYO)’에서 시스템·시스템옴므 단독 프레젠테이션을 연다. 또 23일까지 프랑스 마레지구에 위치한 ‘돔 그레이하운드 파리’ 매장에서 쇼룸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섬은 특히 시스템·시스템옴므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 2020년 F/W 시즌 콘셉트를 ‘뉴 오더(NEW ORDER)’로 정했다. ‘뉴오더’는 1980년대 뉴웨이브 장르와 댄스를 접목한 음악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한섬 ‘시스템’ 2020 F/W 글로벌 에디션.

영국 밴드로, 한섬은 뉴오더의 시대를 앞선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아우르는 범용성 등에서 영감을 얻어 시즌 콘셉트를 정했다.

한섬은 또 시스템·시스템옴므의 해외 수출용 제품 개발을 전담하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GCD)’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이번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도입을 통해 유럽·미국·동아시아 등 주요 수출 대상국 패션시장에 최적화된 100여 종의 ‘시스템·시스템옴므 글로벌 에디션’을 새로 선보인다. 박미선 기자 only@

“영양만점 간편 먹거리” 가공란의 재발견

1인 가구·웰빙 트렌드 타고
지난해 시장 규모 35% 확대

날로 먹기도 하고 구워서도 먹는다. 쪄 먹어도 맛이 좋은데 단백질과 지방뿐 아니라 비타민까지 함유하고 있어 완전식품으로 불린다. 어려웠던 시절 모두가 먹고 싶어하던 최고의 반찬이었고, 오늘날은 냉장속 필수품이 된 ‘계란’ 얘기다. 1인 가구 증가와 건강 중시 문화 확산 등 사회 변화 속에서 계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삶거나 구워 조리할 필요 없는 달걀’, 가공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운란, 훈제란, 반숙란 등이 가공란에 속한다. 기술 발전으로 영양 손실을 최소화한 가공란은 딱이나 조각 과일 등과 함께 핑거밀(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가능한 음료)로도 손색 없다는 평가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난 가공 시장은 지난해 580억 원 규모까지 확대됐다. 전년(430억 원) 대비 34.9% 증가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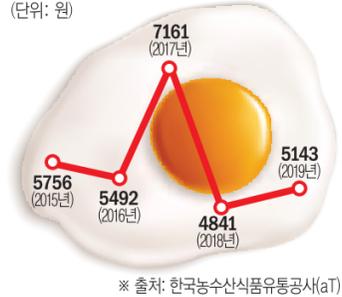
가공란 매출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성장세가 폭발적이다. 15일 오픈마켓 위메프에 따르면 가공란 중 ‘반숙계란’과 ‘맥반석계란’의 매출액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각각 186%(약 3배), 300%(4배) 증가했다.

위메프는 “간편식 인기가 계속되면서

BGF리테일 가공란 매출 신장률



연평균 계란 소매가 변화 추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가공란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며 “반숙란의 경우 SNS에서 반숙란을 활용한 레시피가 유행한 것도 매출 증가에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가공란의 인기 원인으로 △온라인을 통한 신선식품 구매 증가 추세 △오프라인과 비교해 저렴한 가격 △대량 구매 시 편의성 등을 꼽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도 가공란 인기는 높다.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대형마트보다 편의점에서 가공란 매출 증가가 돋보인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전년 대비 가공란 매출 신장률은 2017년 23.9%, 2018년 22.1%를 기록했다. 지

난해 가공란 매출 신장률도 15.2%로, 생란의 매출 신장률(4.0%) 대비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최근 저탄고지(저탄수화물·중단백·고지방) 식단이 유행하며 단백질 섭취를 원하는 고객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CU는 2017년 편의점 업계 최초로 새로운 형태의 가공란인 ‘CU 수란’을 출시하는 등 가공란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다. 현재 이 회사는 15종의 가공란 상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달 내로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지난해 가공란 매출 신장률도 BGF리테일과 비슷한 수준인 15.8%를 기록했다. GS25는 서장훈반숙란(3입), 죽염동의 훈제란 등 6종의 가공란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가공란이 인기를 끌자 식품업체의 제품 출시도 이어지고 있다. 풀무원식품은 2018년 농림축산부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계란을 사용한 ‘동물복지 훈제란’을 편의점 전용으로 선보였다. 국내 산 참나무로 훈연해 담백한 맛을 살리고 비린 맛을 줄인 점이 특징이며 CU에서 판매되고 있다.

전태유 세종대 교수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간편식에 대한 관심과 소비 증가로 가공란 소비가 늘고 있다”라며 “가공란은 아침 식사 대용과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오리온 감자 스낵, 韓·中·베트남 매출 2000억 돌파

오리온은 생감자 스낵인 ‘포카칩’, ‘스윙칩’이 지난해 한국, 중국, 베트남 합산 매출 2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누적판매량은 약 3억 8000만 봉에 달한다.

베트남에서는 포카칩(현지명: O' Star)이 전년 대비 약 34% 성장한 매출 219억 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현지 생감자 스낵 매출 1위에 올랐다. 스윙칩(현지명: Swing)도 전년 대비 매출이 약 19% 늘며 158억 원을 기록했다. 오리온의 베트남 내 생감자

스낵 시장점유율은 약 37%로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에서는 스윙칩(현지명: 하오요우취, 好友趣)이 전년 대비 15% 성장한 매출 830억 원을 달성했다.

오리온은 생감자 스낵의 성장 요인으로 ‘현지화 전략’을 꼽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김맛을 비롯해 김치맛, 스테이크맛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며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다.



중국에서는 자극적이지 않은 신선한 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차별화된 맛과 식감의 제품을 끊임 없이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스낵 명가로서 위상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암 치료 '체내 미생물 신약' ... 국내기업 승산 있다

해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단계 임상 1·2상 수준
국내서도 고바이오랩 필두로 줄줄이 임상... 선점 기대감
글로벌 시장 연평균 131% 성장하며 2024년 11兆 추산

올해 국내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전문 기업들의 임상 속속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제 특허 및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연구 소식 등의 낭보가 날아들며 태동기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 선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를 합친 용어로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유전정보 전체를 말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체내 미생물과 비만,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새로운 의약품 원료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대장암, 폐암, 치매, 아토피 등의 치료제 개발에 앞다퉀 뛰어들며 많은 임상 및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전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9년 1억 4200 달러(약 1640억

원)에서 2024년 93억 8750만 달러(약 10조 8453억 원)로 5년간 연평균 13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글로벌 기업의 경우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국 리바이오티스(Rebiotix)의 디피실균 감염 치료제(SER-109)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업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제의 임상 1-2상 단계 개발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임상이 시작된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에서 승산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기업으로 가장 먼저 임상 시험을 시작한 고바이오랩은 최근 자가면역질환 치료 신약 'KBLP-001'의 호주 임상 1상 시험 투약을 최종 완료했다. 이번 임상 시험 결과를 토대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임상 2상 진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업체	제품	적응증	올해 임상계획
고바이오랩	KBLP-001	자가면역질환 치료 신약	美 FDA 임상 2상 IND 예정
제노포커스	GF-103	경구용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Wet AMD) 및 염증질환(IRD) 치료제	美 FDA 임상 1상 IND 예정
셀바이오텍	CBT-P8	대장암	식약처 임상 1상 IND 예정
지놈앤컴퍼니	GEN-001	폐암 등 다양한 암종	美 FDA 임상 1상 IND 예정



제노포커스와 지놈앤컴퍼니도 FDA 임상 1상 IND 제출을 준비 중이다.

제노포커스의 IND 제출은 4-5월 경구용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Wet AMD) 및 염증질환(IRD) 치료제 'GF-103'에 대한 임상 디자인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아시아 최초로 글로벌 기업(머크·화이자)과 공동연구를 하게 된 지놈앤컴퍼니 역시 상반기 중 IND를 제출하고 연내 임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임상은 지놈앤컴퍼니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항암제 'GEN-001'과 머크와 화이자 보유의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성분명 아벨루맵)의 병용을 통해 다양한 암종에 적용하게 된다.

최근 미생물의 약물의 작용기전(MOA)을 밝혀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로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연구소들의 공동연구가 트렌드로 자리잡아가는 가운데 이번 지놈앤컴퍼니와 머크·화이자의 공동 임상에 업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트리라이트', '듀오락' 등 유산균 전문 건강기능식품회사로 알려진 셀바이오텍도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셀바이오텍은 대장암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특허를 취득한 바 있으며 그 동안 장까지 유산균의 생존을 지켜주는 이중 코팅 기술을 적용한 대장암 치료제 개발에 공들여왔다. 회사는 올해 초 식약처에 대장암 치료제 'CBT-P8'의 임상 1상 IND를 신청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그 밖에 일동제약(정신질환), 천렵(장질환, 간질환 및 면역항암제 병용), 종근당바이오(만성간질환) 등도 임상 진입을

위한 R&D가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이 초기단계인 만큼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의 도전이 글로벌 시장 개척에 충분해 보인다"며 "다만 시장 선점을 위해선 기술 이외에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상생 파트너십 구축 및 IPO 등을 통한 투자금 확보 등으로 성장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가운데서는 비피도와 천렵만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상태로, 지속적인 IPO(기업공개)를 통한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 올해에는 지놈앤컴퍼니, 고바이오랩 등이 코스닥 시장 입성을 준비 중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제약바이오협 신년 기자간담회

“제약업계 손잡고 美 글로벌 거점 K-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사활”

원희목 회장, 해외 혁신신약 공동연구·정보 교류 서비스 예정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올해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에 사활을 건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15일 서울 방배동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제대로 된 판을 깔아서 회원사들이 뿔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1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은 아직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지만 미래 성장 잠재력은 제약 선진국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면서 “2020년은 총체적인 혁신의 실천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우선 30개 이상의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미국 바이오 생태계에 글로벌 거점을 확보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밀너 컨소시엄에 가입해 혁신신약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한 국내외 제약사와 바이오벤처, 학계, 산업계, 투자자들이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립한 인공지능(AI) 신약 개발지원센터는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와 맞물려 본격적인 성과 실현에 나선다. 국내 보건 의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역량을 높일 전망이다.

부족한 제약·바이오산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내놴. 협회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설립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원 회장은 “우리나라에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인력 양성 기관이 설립되면 동북아의 바이오 허브 역할을 해나갈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제네릭 의약품 생산 기준 강

화와 약가 통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 품질 제고 전략도 수립했다. 제네릭 의약품 제조·판매가 주된 사업인 중소 기업들도 연구·개발(R&D)을 기본으로 하고, 제조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해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내용이 다. 국내 보건 의료 전문가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기업의 생산 공장을 방문하는 ‘오픈 하우스’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원 회장은 “신약 개발을 위한 R&D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산업육성의지를 실행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연간 2조7000억 원의 민관 R&D 총투자 자금 중 정부투자 비중을 현재 9.1% 수준에서 일본 수준인 2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도 글로벌 위원회에 회원사(일동제약)의 전문인력이 파견돼 현장과 정책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원 회장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메디톡스 ‘보톡스 균주 전쟁’ 美서 결판 대웅제약

대웅제약 ‘제조공정 편취 혐의’ 내달 ITC 재판 돌입 상반기 결판

보툴리눔 독소 ‘나보타’의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기나긴 진실게임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칼자루를 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다음 달 4일(현지시간)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미국 엘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독소 제조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불법 행위에 대해 ITC에 제소했다. ITC는 양사로부터 균주 조사 결과와 관련 허가 서류 등 자료를 제출받아 11월부터 증거 심리를 진행했다.

누가 승기를 잡을지는 상반기 중에 확인할 수 있다. ITC는 절차에 따라 6월 예비 판정을 내놓는다. 이어 10월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결론에 대해 ITC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를 뒤집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회사의 명운을 걸고 날선 공방전을 이어왔다. 시작은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4년에 걸쳐 균주 도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던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에 소송을 냈지만, 2017년 미국 법원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소송을 진행하라”고

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보툴리눔 독소’ 공방 일지

2006년	3월	메디톡스, 국내 최초 보툴리눔 독소 ‘메디톡스’ 출시
2014년	4월	대웅제약 ‘나보타’ 국내 출시
2017년	6월	메디톡스, 미국 법원에 대웅제약 민사소송 제기
	10월	메디톡스, 국내 민사소송 제기
2019년	2월	미국 FDA ‘나보타’ 판매 승인
	3월	미국 ITC, 대웅제약·에볼루스 조사 착수
	11월	미국 ITC, 증거 심리 개시
2020년 (예정)	2월	미국 ITC, 재판 시작
	6월	미국 ITC, 예비 판정
	10월	미국 ITC, 최종 결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판단하면서 국내 민사소송에 돌입했다. 민사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 판결 시기가 불투명하다. 앞서 국내 재판부가 양사에 ITC에 제출한 보톡스 균주 염기서열 전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던 사례로 미뤄, ITC의 결론은 민사소송의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사 공방전의 종료는 막대한 소송 비용 지출도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수년에 걸친 법적 분쟁을 이어오면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분기 ITC 소송 관련 비용 약 78억 원이 발생해 역대 최악의 영업이익을 냈다. 대웅제약도 마찬가지다. 대웅제약은 3분기 104억 원의 소송비용을 들이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5.2% 급감했다. 4분기에는 메디톡스가 60억 원, 대웅제약이 100억 원 이상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든 소송 비용이 절감되는 것만으로도 실적 개선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보툴리눔 독소 시장이 이미 오래전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양사는 모두 글로벌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웅제약이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한발 앞선 모양새다. 에볼루스에 따르면 나보타는 지난해 3분기 미국에서 1320만 달러(약 153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현지 점유율 3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메디톡스가 승리하면 판도는 급변한다. ITC가 나보타의 미국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할 경우 대웅제약은 세계 최대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후폭풍이 우려된다.

메디톡스는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손을 뻗었다. ‘뉴로독스’는 국산 보툴리눔 독소 중 가장 먼저 중국 시판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허가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점은 부담이다. 그 사이 대웅제약도 나보타의 중국 임상에 본격적으로 착수, 세계 2위 시장에 대한 경쟁 열기가 달아올랐다. 결국, 진실게임에서 승리하는 쪽이 ‘K-보툴리눔 독소’의 맹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혜은 기자 euna@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차바이오텍 ‘땃줄 유래 줄기세포 기술’ 日서 특허

세포치료제 개발 전문 바이오기업 차바이오텍이 급성 뇌졸중 질환 치료제 개발을 가속한다.

차바이오텍은 땃줄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에 대한 일본 특허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기존 줄기세포치료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인 골수 유래 줄

기세포에 비해 면역조절 및 신경재생 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주요 인자들이 높게 발현하는 땃줄 유래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이다. 향후 허혈성 질환 및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에 적용이 가능하다.

차바이오텍은 땃줄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활용해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코드스텝(CordSTEM)-ST’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임상 1/2a상을 완료하고 임상 2상을 준비 중이다.

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는 “땃줄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에 대한 일본시장 권리 확보로 코드스텝-ST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면서 “뇌졸중 치료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상장사 4분기 실적 '먹구름'... 증권사, 전망치 낮춰

증시 美·中 무역분쟁 완화·반도체 업황 기대감 호조세 불구하고
증권사 3곳 이상 컨센서스 기업 165곳 영업익 추정 26.2兆
3개월 전보다 12% 줄어... 삼성전자 영업익 7.1兆 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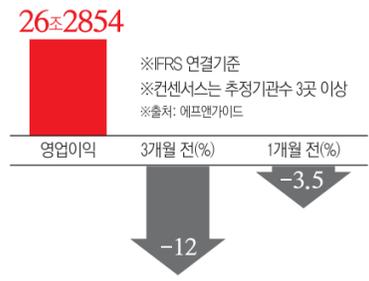
증권사들이 코스피 상장사들의 작년 4분기 실적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증시가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조세를 나타내는 것과 괴리된 모습이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기업 중 증권사 3곳 이상 전망치를 내놓은 165개 기업의 지난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6조2854억 원이다. 3개월 전 컨센서스 추정치(29조8810억 원)보다 12.0% 줄어든 규모다. 한 달 전(27조2384억 원)보다도 3.5% 영업이익을 줄이는 등 실적

추정치를 연이어 낮추고 있다. 업종별로 △내수소비재(-48.0%) △전자장비(-39.5%) △화학(-33.3%) △금속 및 광물(-30.0%) △조선(-27.0%) △무역(-17.9%) △석유 및 가스(-17.1%) △상업서비스(-16.1%) 순으로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폭이 컸다. 전력, 항공운수, 에너지 시설 및 서비스, 운송인프라 업종은 3개월 전과 달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개별 기업 중에서는 삼성SDI(-90.2%), 현대제철(-80.2%), 대한항공(-74.9%), 세아베스틸(-63.9%), LG화

2019년 4분기 코스피 상장사 실적 컨센서스
(단위: 억 원·추정치)



학(-56.3%) 순으로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폭이 컸다. 또 한국전력, OCI, 현대로템, 하나투어 등은 영업의 추정치가 적자로 돌아섰고 티웨이항공, 삼성중공업, LG 디스플레이, 제주항공, 삼성생명 등은 3개월 전 추정치보다 영업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어닝시즌(실적발표 기간)에 들어서면

서 이날까지 4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한 코스피 상장사는 삼성전자, LG전자, 고영, 한진 등 4개사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을 7조1000억 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3개월 전 추정치보다 0.8% 상승한 것으로 올해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반면 LG 전자는 지난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986억 원으로 3개월 전 추정치보다 70% 밀도는 '어닝쇼크'로 시장에 충격을 줬다.

4분기 기업 실적 전망은 낮아지고 있지만 증시 회복 기대감은 오히려 커졌다. 세계 반도체 업황과 중국 수입 수요의 회복, 미·중 무역분쟁 완화, 풍부한 유동성 등이 호재로 꼽힌다. 당장 눈앞에 나타난 부진한 실적보다 향후 기대감이 증시를 주도하는 셈이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4분기 전망치의 하향 조정은 지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4분기 어닝시즌은 타 분기보다 기간이 길어 집중도가 낮고 가이던스(실적 전망치)가 함께 발표되기 때문에 증시의 관심이 실적보다 기업의 미래인 가이던스에 맞춰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이 1년 동안 이어져 온 데다 4분기 실적은 12월 결산 법인이 그동안 부실을 털어내는 등 계절적 하락 요인이 작용한다"며 "그런데도 시장은 반등 흐름을 보이는데 특히 IT 업종 반등세 강한 것은 4분기 실적 이후의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월 효과는 맹신할 수 없다"며 "4분기 실적이 긍정적인 업종이나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되는 종목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안철수 테마주' 기업 임원 줄줄이 매도

지에스이, 올해 초부터 주가 급등
회사 임원들 반씩 차익실현 나서
올 1월 씨니전자 입사한 박 이사
4거래일 만에 4억7000만원 챙겨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1년여간의 해외 체류를 마무리하고 국내 정계로 복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력 정치인 중심의 테마주가 기세를 부리고 있다. 특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안철수 테마주'의 급등락이 심상치 않은 모양새다. 특히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출렁이는 사이 해당 기업들의 임원들은 반씩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에스이의 양기영 전무이사는 체결일 기준 7~8일 보유주식 4만1190주를 전량 2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훈 이사 역시 8일에 1만4128주를 2070원에 전량 팔아치웠다. 앞서 2017년 지에스이는 안철수연구소 출신인 김성희 씨를 감사로

선임했다는 이유로 관련 테마주에 편입됐다. 지난해 12월까지 1400원대에서 움직이던 주가는 올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15일 장중 최고 234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안철수 전 대표와 사업적 연관성을 부인한 상태다.

씨니전자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주가는 지난해 연말까지 3500원 선에서 움직였지만, 올초부터 6000원대로 급등했다. 씨니

전자는 송태중 전 대표가 안랩 출신이라는 이유로 관련 테마주로 묶여 선거 때마다 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과거 씨니전자 측 역시 "안철수 전 대표와 업무상으로 무관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안철수 테마주와 무관하다는 회사 측의 공식 해명에도 내부 임원들은 단기 급등에 발빠르게 차익실현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문 이사는 올해 1월 1일 신규 취임하며 9만7370주를 받았지만, 6일 4805원에 전량 장내 매도했다. 박 이사가 씨니전자 입사 후 4거래일 만에 챙긴 금액은 4억7000만 원에 달한다. 최창근 이사, 장복수 이사도 각각 7억2000만 원, 2억3000만 원을 현금화했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14억2000만 원 수준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사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임직원들이 보유주식을 매도한다는 건 이미 그 회사가 고평가됐다는 신호로 보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희 기자 jih@

NH투자증권, 몸값 1兆 '파크원2' 품는다

본사 건물 매각 후 실입주 계획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서울 여의도 파크원 조감도.

NH투자증권이 몸값 1조 원에 달하는 파크원(Parc.1) 타워2(B동)의 주인이 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파크원2 입찰에서 이지스자산운용·KKR 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입찰은 NH투자증권과 KKR 컨소시엄의 양강구도로 좁혀졌다. 원매자 간 제시가격 차이도 크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9500억 원 안팎을 제시했고 KKR 컨소시엄의 경우 9300억 원 안팎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파크원을 개발하는 'Y22 PFI'가 지난해 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연돼 왔다. 업계는 시행사가 가격 우위와 함께 거래 실행 리스크 여부를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해석했다.

연면적 16만2217㎡(4만9070평)에 달하는 규모를 감안할 때 7월 입주까지 임차인을 확보해 공실을 막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의 경우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 파크원 건물에 실입주할 계획이란 점에서 공실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여의도에 세워지는 파크원은 오피스타워 2개동과 백화점, 호텔 등의 복합문화시설로 구성돼 있다. 이번 매각 대상인 타워2는 연면적 16만2217㎡(4만9070

평), 높이 245.7m(53층) 규모다. 통상적인 프라임급 오피스의 2배 이상으로, 여의도에선 파크원 타워1(338m), IFC3(28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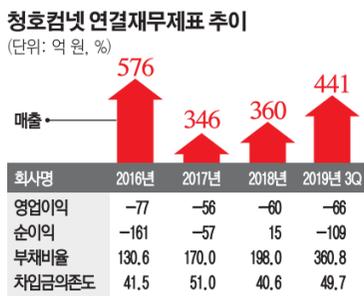
NH투자증권이 파크원 타워2를 매수할 것이란 관측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파크원 개발의 돈줄 역할을 하며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6년 자금 규모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파크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주관했다. 금융사 중심으로 대주단을 구성해 6년여간 멈춰선 파크원 공사를 재개시켰다. NH투자증권도 자체적으로 2500억 원을 투자했다. 때문에 투자 성과를 내기 위한 경우의 수 중 하나로 타워2를 직접 사들이는 방법도 거론됐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적자행진 10년... 부채비율 200% 넘어

한계기업 돋보기

청호컴넷



청호컴넷의 적자가 10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누적된 손실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면서 한계기업군에 속하게 됐다.

1977년 ATM기 제조·판매 시작
차 부품 매출 늘며 금융사업 줄여
계열사 대왕제지 작년 영업정지
2009년 10억 흑자 끝 '만년적자'

은 22.83%, 여기에 청호정기와 일부 임원 지분을 더한 최대주주 지분은 31.89%다. 청호엔터프라이스는 지장배 청호컴넷 회장이 43.71%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다.

주력 사업은 금융 자동화이며 이 밖에 자동차 부품사업, 제지사업이 있다. 금융

사업 비중은 2018년까지만 해도 90%에 육박했지만 작년에 자동차 오일필터 제조 등 자동차부품 사업 매출이 크게 늘면서 40% 비중을 차지하고 금융사업은 50%대로 낮아졌다. 청호컴넷은 이 밖에 계열사 대왕제지를 통해 제지사업도 펼쳤지만 현재는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지난해 7월 최종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

청호컴넷이 마지막으로 흑자를 낸 시점은 연결기준으로는 2005년의 65억 원이 마지막이다. 또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면 2009년 10억 원 흑자를 끝으로 작년 까지 영업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개별 매출이 1035억 원에 달했지만 3년 만에 500억 원대로 반토막 났으며 작년 3분기에는 238억 원으로 줄었다. 이처럼 전체 매출이 크게 줄어 매출 총이익의 규모가 축소된 반면 매년 판관비는 100억 원 이상씩 지출하면서 구조적인 적자 사업 형태로 변형됐다.

조남호 기자 spdran@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0년 1월 15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64,100	48,000 (15.2%▲)	모네로	70,500	1,650 (2.4%▲)
리플	259	15 (6.1%▲)	비트코인골드	16,900	7,695 (83.6%▲)
라이트코인	63,550	3,650 (6.1%▲)	이더리움 클래식	7,880	1,505 (23.6%▲)
대시	127,300	40,650 (46.9%▲)	퀀텀	2,154	181 (9.2%▲)

전일 대비: 비트코인 89,000원 (0.9%▲), 6개월 대비 -3,130,452원 (24.5%▼)
전일 대비: 이더리움 12,900원 (7.7%▲), 6개월 대비 -116,513원 (39.3%▼)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정부 '뿔난' 1·2기 신도시 달래기 나섰다

LH, 노후한 구도시 쇠퇴 우려 용도변경·용적률 상향 등 제시 일자리 확대 등 인프라 구축 나서 야당도 '노후 신도시 특별법' 발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정부가 기존 신도시 달래기에 나섰다. 3기 신도시로 사람과 돈, 일자리가 빠져나가 기존 1·2기 신도시가 공동화(空洞化)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상생·연계 발전 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상대적으로 생활 환경이 노후한 주변 구(舊)도시가 쇠퇴하거나, 신구 도시 사이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LH의 우려다. LH 측은 신구 도시가 연계·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적 해법이 필요하며 연구용역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용역이 시작되면 3기 신도시와 가까운 기존 신도시를 살릴 방안이 중점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조성이 발표된 직후부터 기존 신도시 주민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각각 3기 신도시인 창릉 신도시(고양)와 가까운 고양 일산신도시(1기), 파주 운정신도시(2기)에선 인구 유출과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특히 크다. 이웃에 3기 신도시가 두 곳(인천 계양 신도시, 부천 대장신도시)이나 들어서는 인천 검단신도시(2기)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3기 신도시 조성에만 공을 들이면 1·2기 신도시가 심각한 쇠퇴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같은 경우, 고령화와 상권 몰락으로 '노후' 신도시가 쇠퇴하는 현상을 일찌감치 겪고 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저성장 고령화가 고착하고 생활 환경 악화가 심화하면 기존 신도시의 생명력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LH 측은 기존 도시와 3기 신도시가 함께 살려면 연계 인프라 구축, 도시 기능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심 활성화와 위한 금융 지원과 용도 변경 인센티브, 용적률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면 3기 신도시 조성 및 맞물려 기존 신도시에서도 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등이 활성화될 수 있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자족 기능 강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LH는 이르면 다음 달에 검단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 LH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선 계양·대장 신도시와 차별화된 자족 기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H 측은 검단신도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 소재·부품기업을 유치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형병원 유치 역시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일자리 부족이나 의료 인프라 미흡은 그동안

검단신도시의 약점으로 꼽혀왔다.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상생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도시 간 연계 발전의 핵심인 교통망 구축부터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운정·일산신도시와 서울 도심·강남, 동탄신도시를 잇는 GTX-A 노선은 2018년 기공식을 열었지만 주민 반대로 강남 구간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2025년 완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한다.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하남 미사강변도시를 잇는 수석대교도 2018년 건설 계획

이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위치도 못 잡고 있다. 미사신도시에선 서울로 출퇴근할 때 도로 의존도가 높는데 수석대교가 지어지면, 왕숙신도시 차량까지 더해져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질 것이란 하남 시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정부 움직임과 별도로 야당에서도 기존 신도시 민심 잡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명은 지난달 '노후 신도시 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노후 신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이들 지역에 도시 재생사업, 규제 특례,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4월 총선에서 일산신도시에 출마하는 김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전 교수는 "신도시가 오랫동안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인 가구 증가에 맞춰 주택 공급 정책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했습니다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2836억

작년 386.4% 급증... '강통전세' 우려에 반환보증 가입 늘어

지난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가 전년 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대위변제한 금액은 283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583억 원보다 386.4% 급증한 수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대위변제는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보증 발급 규모도 1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발급한 보증 규모는 30조6444억 원(약 15만6000건)으로 2018년 19조367억 원(약 8만9000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증 발급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초·중반에 전셋값이 약세를 보여 역전세 우려가 커진 데다 급격하게 변하는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보증 상품을 찾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역전세는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어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HUG 관계자는 "보증 발급 규모가 증가한 배경에는 '강통전세' 우려가 커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강통주택은 집값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 아래로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

세금을 모두 돌려주기 어려운 집을 말한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품 가입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보증 발급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예전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2월부터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됐다.

한편 HUG는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상·인하 여부를 논의 중이다.

주택금융공사(HF)가 이르면 6월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출시하는데 보증료율은 HUG나 SGI서울보증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희 기자 jhsseo@

현대건설, 알제리 8500억 공사 수주

현대건설이 또 다시 해외수주 소식을 전했다. 카타르·싱가포르에 이어 알제리에서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수주에 성공하면서 올해 1월 들어서만 약 2조1000억 원(18억 달러)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인터네셔널과 컨소시엄으로 알제리 우마세 3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약 8500억 원(7억3000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수도 알제에서 동남쪽으로 340km 떨어진 비스크라(Biskra)주 우마세 지역에 약 1300MW 용량의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60개월이다. 문선영 기자 moon@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금융부채로 어려운 가계에는 희망을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공공자산의 잠재된 가치를
캠코가 만들어갑니다.

캠코는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대표전화 : 1588-3570



가계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개인연체자 채무부담 경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기업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DIP금융(회생기업 자금지원)
캠코선박펀드 운영

공공

저활용 국·공유재산 가치창출
유류 저활용 국·공유재산 관리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온비드(OnBid) 운영

檢, 사기당한 돈 돌려주려 '총력'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

글 쓰는 순서

- ①지능화되는 신종 금융범죄
- ②서민 속이는 교묘한 사기꾼들
- ③멈추지 않는 피해자의 눈물
- ④'서민다중피해' 주사하는 검찰<끝>

서민다중범죄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검찰이 '범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이 2년 새 3조 원에 달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종사기가 늘면서 피해자 구제에도 힘써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반부패수사부 계약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을 파견받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범죄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압수 및 회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불법다단계·유사수신, 가상화폐 거래, P2P(개인 간 거래) 대출 빙자 사기,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3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꾸려진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올해 정식 직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에 수사 직제화 등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박영진 대검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장

서민다중피해범죄란?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가상화폐 거래·P2P 대출 빙자 사기,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에게 광범위하고 대량의 피해를 양산하는 계획적·조직적 경제범죄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

2019년 3월	대검 수사부 내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 TF' 출범
8월	전국 28개 검찰청 전담부서 및 전담검사(66명) 지정,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으로 명칭 변경, 송치 강력 범죄 및 환경 범죄 추가
12월	대검 반부패수사부 계약추적 전문 수사관 2명 파견

대검 계약추적 전문 수사관 보강 처벌은 물론 피해 회복 지원 확대 올 상반기 부패재산몰수법도 시행 컨트롤타워 없고 인력부족이 문제

은 "서민다중피해 범죄는 전형적인 민생범죄 사건으로 일선에서 수사가 잘 되고 피해 회복까지 이뤄지도록 경찰이든 검찰이든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데, 현재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을 위해 전국 28개 검찰청에 전담 부서와 66명의 전담 검사를 두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팀장은 "일선 청에서 관련 사건이 송치되면 수사나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절실하다"며 "아직 예산이나 규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달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을 통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검의 지휘 부서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형사부 지휘 부서는 현재 형사1과와 형사2과 등 2개뿐이다.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범죄수익 환수·회복 전담 수사관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75억 원(7건)의 몰수추진보전을 지원했고, 29건의 범리 검토자료를 제공하는 등 일선 청 업무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이 마련되면 피해자 구제 관련 업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통과된 이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와 △유사수신행위수법·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를 추가하는 한편,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마련한 시행령 초안에 피해액 지급 절차·대상을 선정하고, 지급액을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부패재산몰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형사 재판 확정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김보름 기자 fullmoon@



박원순 서울시장(14일)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초청연설을 한 후 참석자들과 환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이 한반도에 투자할 때"

박원순, 美 순방 마지막날까지 '서울 세일즈'

美 상공회 초청 연설서 강조 2032년 남북 올림픽 성사면 서울이 北 진출 교두보 될 것

7박10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14일)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300만 기업을 회원사로 둔 세계 최대 비즈니스 조직인 미 상공회의소의 초청 연설에서 "지금 바로 한반도에 투자할 프라이머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미 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을 한 것은 박 시장이 처음이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 인재 기반 혁신산업 육성 등의 경제 정책과 철학을 소개하며 매력적인 투자 재료들을 홍보했다.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진입, 1인당 GDP(국내총생산) 3만 4000달러, 경제 규모 세계 10위를 자랑하는 아시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국제 사회의 강력한 비즈니스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가장 든든한 우방 미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비즈니스 동반자로서 많은 감정이 있는 곳이 바로 서울"이라며 "서울은 세계 굴지의 테크 기업과 한류의 즐길거리 등이 가득한 역동적인 도시이자 글로벌 리딩 스마트시티"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서울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경제 성장에 대한 막바름은 결국 북한을 개방과 민주화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2032년 서울과 평양의 공동올림픽 개최가 성사되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평화통일의 길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09년 골드만삭스는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한국 경제 규모가 2050년 세계 2위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세계 경제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서울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장, 북한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후 토마스 도노휴 미 상공회의소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고 서울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과 미국 기업인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박 시장은 워싱턴DC에서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워싱턴=김진희 기자 jh6945@



입 굳게 다문 김건모 가수 김건모 씨가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조차 사실로 향했다. 연합뉴스

'대마 상습 투약' 현대가 3세 정현선 항소심도 집유

재판부 "초범이고 반성 중"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 3세 정현선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같

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기간이 피고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집행유예 2년은 더 중요하다"며 "이 기간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씨는 지난해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약산 대마카르티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어려지는 학폭연령... 촉법소년 만14→13세 하향 추진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 시행된다. 교육부는 먼저 소년법이 적용될 만큼 중대한 학교폭력에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소년법 위반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해 가해 학생을 격리하는 제도다. 법원 판단에 따라 가해자는 3~4주간 보호시설(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게 된다. 정부는 만 13세의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보다 만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현경 기자 son89@

'분식회계 행정제재' 삼바 본안소송 시작

법원 "회계처리 적법여부 쟁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것에 반발해 낸 본안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지난해 5월 예정됐던 첫 기일이 연기된 후 소송이 접수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중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과정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 원)에서 시장가액(4조 8000억 원)으로 바꾼 것이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2018년 7월 삼성 바이오에 △대표이사과 담당 임원 해임 권

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11월에도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을 추가로 내렸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이날 재판에서도 이어졌다. 삼성바이오 측 소송대리인은 "일반적인 회계부정 사건이 아닌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에피스)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한 것이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도 공시했기 때문에 회계부정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선위 측은 "이 사건은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쟁점이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진행 결과를 보면 삼성바이오 측에서 회계 조작을 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아닌지가 쟁점이다"고 밝혔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했습니다

“서점 못 가는 독립출판물 위한 플랫폼 필요”

인터뷰

김새봄 한국작은출판문화연구소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서점, 독립출판사들이 많습니다. 서점에서 받아주지 않는 등 유통 문제 때문에 출판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죠. 1인 출판사, 독립출판사들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합니다.”

김새봄 한국작은출판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 소장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이투데이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연구소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연구소는 1인 출판사·독립 작가·작은 책방 등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과 새로운 플랫폼·콘텐츠 개발에 특화된 단체다. 이달 2일 정식 출범했다.

김 소장은 ‘새봄출판사’ 대표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 출판사를 차려 책을 만들기 시작해 12년째 출판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는 ‘작은’ 영역의 출판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몸소 깨닫게 됐다.

“작은 출판” 문화가 현실 속에서 좌절되지 않고 올바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환경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 길을 찾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니까요.”

최근 10년간 ‘독립출판’이라는 이름 아래 작은 출판사와 작은 서점들이 생겨났다.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던 시대가 지나고 소량이지만, 다양한 책을 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페미니즘 혹은 반페미니즘처럼 주제 의식이 분명한 책부터, 기존 형식을 벗어난 다양한 양식의 책까지 자체적으로 양산됐다.

하지만, 이 무시할 수 없는 문화 현상은 ‘작은 출판’이라는 이름 아래 거부됐다. 김 소장은 “자본은 대중의 입맛에 맞는 것만 찾는다”라며 “이 자본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독립출판이 하고 있지만, 서점 안에 입점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다”라고



김새봄 한국작은출판문화연구소장이 7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출판물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국제표준도서번호 달지 못한 책 ‘독립출판’이라 불러 1인 출판사·독립작가, 출판신고·등록 방법조차 몰라 이들 책 저작권 보호하고 유통하면 독자들도 반길 것

지적했다.

급변하는 출판시장 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통망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여기에 주목했다. 서점에서 거부당하면 SNS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지 않아 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해도 작은 서점에서 독자를 만나면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ISBN을 등록하지 않은 책을 독립출판이라고 합니다. 왜 달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ISBN을 달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하고, 그 럼 도서관에서 영구보존을 합니다. 그래야 바코드가 생겨 유통될 수 있으니까요. 국제적으로 ISBN을 달 것을 장려하지만, 어떻게 달지 못한다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ISBN을 달려면 출판 신고도 해야 하

는데, 이 역시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ISBN을 달지 않은 책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들도 저작권 보호를 받고 유통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소장은 독립출판 업계가 상생해야 한다는 바람에서 지난해 6월 ‘풀뿌리독립출판협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처음엔 ‘한국독립출판협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독립출판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이 때문에 협회명을 바꿨다. 김 대표는 “독립출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며 “독립출판 활동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함께 힘을 모아 의견을 개진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풀뿌리독립출판협회는 협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겁고 의미 있는 ‘판’을 짜는 단체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곳입니다. 한국작은출판문화연구소에 선 출판 전문가들의 연구 활동이 이뤄지고 있어요. 곧 ‘시 플랫폼’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서점에서 시집을 구매해서 읽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매달, 매 계절마다 문예지에서 발표되는 시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독자들이 반기지 않을까요? 출판사에는 문예지 판매에 도움을 주고, 작가들에게는 시장적으로 인한 금전적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 소장은 죽어가는 종이책 시장을 살리기 위해 협회와 연구소가 앞장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독립출판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할 때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내놓은 게 필사책이었죠. 책 안에 필사할 수 있으며, 필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은 많았지만 책 안에 소설을 통째로 넣어 필사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은 생소했어요. ‘나의 첫 필사노트’를 생각해 내었는데, 베스트셀러까지 올랐어요. 이러한 인식의 전환 등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서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소희 기자 ksh@

새로 나온 책



독일을 이야기하다3 한독경제인회지음/세넵 퍼냄/1만8000원 창립 8주년을 맞이한 한독경제인회가 2016년 ‘독일을 이야기하다’ 1권과 2권에 이어 제3권을

출판했다. 독일 통일 30주년을 기념한 결과물이다. 그렇다고 통일이야기만 다루진 않는데, 이전 책들에서 놓쳤던 현장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담겼다.

책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인 토마스 바흐의 특별기고 ‘1988 서울올림픽 그리고 2018 평창올림픽’을 비롯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독일, 참으로 좋은 인연’, 독일에서 유도 국가대표 감독을 36년 지낸 한호산 명예감독의 ‘독일 유도의 대부 타이거 한’ 등 쉽게 만날 수 없는 육고가 실렸다.

저자들은 독일에 체류했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독일을 분석하고 이를 정리해 책으로 엮어 나가는 것은 다음 세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구독경제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닷케이 크로스 트렌드 지음/조사연 옮김/한스미디어퍼냄/1만5800원

지난해 전 세계 비즈니스 분야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구독경제’, 이른바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일 것이다. 앞으로 5년, 혹은 10년 안에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물건의 매매 방식에 일어날 획기적인 변화의 중심에도 서브스크립션이 있다. 도요타, 파나소닉 등 세계 유수의 레거시 기업들이 앞다투어 정기구독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는 의·식·주·동·락, 즉 입고 먹고 거주하고 이동하고 즐기는 일상의 라이프스타일을 기준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정기구독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했다.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월호 발매

COVERSTORY 웰컴 에이징

PART1. 나이 불의 미학 - 늙음과 늙음, 한 획 차이
PART2. 나이만큼 아름다워지는 삶 - 나이 불의 품격 '어르신나이어에게 듣는다'
PART3. 노화의 선물 - 백발이 빛 발하는 나이
PART4. 나이가 아닌 품격을 엮다 - 스타일 나는 인생
PART5. 웰에이징 설명서 - 나이 막으면 즐 어때
PART6. 우리들의 특권 - 화려한 VIP '오달시대'를 위하여!!
PART7. '2019 제1회 KMA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수상자 - 제2의 멋진 인생을 열다

다불어 숲
하늘 아래 처음 열린 길

귀촌
귀농으로 얻은 경제, 그리고 긍정의 힘

Well Aging

신라비가 만난 사람

두어 가이드
중세와 현대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불의 도시 '바쿠'

행복해 길림 진수성찬 없어도 입맛 절로 나는 새끼귀와 우거지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항산화 성분 가득, 카카오뉴스 활용 레시피

프로 골퍼 김용준 김형
김용준 돌아오라 돌 왓슨이여

“직원이 주안인 회사를 만들어서 행복하다 6세 박종규 씨가 통찰한 인생과 경영 해법

“있는 그대로 재미있게 사는 것이 중년의 맛” 백우 홍요섭, 물론 길을 걷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말한다

불기락이 파범벅 오방난전이 되더라도 활타기 명인 김예균

신과 신화 인간들의 이야기가 풍성한 코카서스 3국의 첫 번째 여행지는 이페르브라이언의 수도 바쿠Baku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첫 여행지가 됐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스스로 만족하게 풀이한 해답들을 이야기하고 싶다. 부족한 재주로 나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의 얼굴은 자책도 기대한다.

I have a Dream - 걸을 수 있는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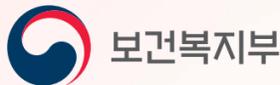
남들은 여행이다 친구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혼자 걸으면서 보는 세상 구경 -

이제 더 이상 계단도 언덕도 겁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내가 무릎을 일으켜 세워준 당신 덕분에
한 발 한 발 세상 속으로 두번째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퇴행성관절염의 고통을
참고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무릎인공관절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걷게하는 꿈과 희망을 나누어주세요.

후원문의 : 02-597-6599 / www.ok6595.or.kr



●주최:  재단법인 Senior Healthcare Sharing Foundation
노인의료나눔재단

●후원: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사랑의열매

저소득층 노인 의료 복지서비스 확대 지원 예정
무릎 인공관절수술 외 노인성 질환 수술 지원 예정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항목까지 확대 지원 예정
노인 관련 의료 보조기구 지원 예정

사회적 나눔을 함께 할 의료 관련 기업을 찾습니다
요실금, 치질, 전립선 등 노인질환 관련 병원 및 기업
보청기, 신발, 건강보조식품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보조기구 지원
의료기구 마케팅 테스트 대상 활용 가능

협력 문의
문의전화 : 02-597-6599
노인의료나눔재단 

방문규 행장 새해 첫 현장행보는 '소부장 강소기업'

<수출입은행>

광주 첨단산업단지 오이솔루션 찾아 금융 관련 애로 들어 "우량 중소·중견기업 원천기술 확보 위해 자금지원 힘쓸 것"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신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한 강소중소기업을 찾았다.

15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방 행장은 14일 광주시 북구 첨단산업단지에 소재한 유무선 통신장비 부품 제조업체 '오이솔루션'을 방문해 관련업계의 어려움을 들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수입이 까다로워지자 금융권에서는 국내 제조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화두가 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허리'로도 불린다.

2003년 8월 설립된 오이솔루션은 5세대(5G) 이동통신 핵심부품인 광트랜시버와 스마트 트랜시버 등을 제조·수출하는 강소기업이다. 광트랜시버는 대용량 라우터와 스위치 등 광통신수신장치에서 전기신호와 광신호를 상호 변환시켜 광통신이 가

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을 말한다.

오이솔루션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체 광트랜시버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광소자(레이저다이오드)의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제품개발이 완료돼 상용화되면 일본·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광소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박용관 오이솔루션 대표이사는 "글로벌 Top 5 통신장비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세계 최초 분야를 지속해서 개발해 5G 이동통신용 광트랜시버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선 제품의 연구 개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행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 및 연구개발(R&D), 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이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14일 신년 첫 현장소통행보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소부장 분야의 강소기업 오이솔루션을 찾아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용관 오이솔루션 대표이사, 박한 오이솔루션 부사장, 방 행장.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수은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대답했다.

방 행장은 지난해 11월 거래기업과 수은 부산지점, 창원지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금융지원을 독려하는 등 현장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수은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설치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동성 공급, 해외 M&A 투자 및 R&D 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수은은 특히 올해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18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곽진산 기자 jinsan@

기서판

삼성성우회 새 회장에 이순동 전 사장

삼성그룹 퇴임 임원 모임인 삼성성우회는 15일 정기총회에서 이순동 전 삼성전자 사장을 제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이 선임회장은 삼성전자 홍보실장,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삼성 브랜드관리위원장, 삼성 사회봉사단장,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삼성성우회 회장 임기는 2년이다.



대한철약학회장에 윤성수 서울대 교수
서울대병원은 혈액종양내과 윤성수 교수가 대한철약학회장에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윤 교수는 1984년에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2001년부터 서울의대 내과 부교수로 부임,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 진료 분야는 다발골수종, 악성 림프종 등이다.

양동원 교수, 인지중재치료학회 취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신경과 양동원 교수가 인지중재치료학회 제2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2년



간이다. 양동원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주임교수와 여의도성모병원 임상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임상과장과 2007년부터 마포구 치매지원센터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KB금융, 이웃돕기 성금 100억 기부



윤종규(왼쪽) KB금융그룹 회장이 15일 서울시 중구 정동 '사랑의 열매 화관'에서 예총석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게 '희망 2020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100억 원을 전달하고 있다.

LS그룹도 공동모금회에 20억 기탁



허영길(㈜LS 이사와 안원형(㈜LS 부사장(왼쪽부터))이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 20억 원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건설협, 소방 취약계층 소화기 지원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사진 가운데)는 15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 '따뜻한 채움터'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2020년 소방 취약계층 소화기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적단체로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중앙회와 13개 시도회가 참여해 소화기 3394대와 화재감지기 316개를 지원했다. 총 4751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지난해 지원 금액(3552만 원)보다 1000 만 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문선영 기자 moon@

'올해 50회 이상 미팅' 약속한 김준 SK이노 사장

울산CLX 찾아 "안전한 작업이 가장 빠른 작업" 강조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13일 SK 울산Complex(SK 울산CLX)를 찾아 구성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행복 실천 의지(Commitment)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정기보수를 마무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한 차원이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보도채널 '스키노 뉴스(SKInno News)'를 통해 김 총괄사장이 이날 오전 넥슬렌(Nexlene) 공장과 조정실을 찾아 현장 구성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넥슬렌은 SK종합화학이

2010년 말 개발한 고성능 폴리에틸렌의 브랜드명이다.

김 총괄사장은 "올해 진행될 정기보수도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안전한 작업이 가장 빠른 작업"이라며 안전을 강조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의 안정적인 공정은 전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맡은 릴라이어빌리티(Reliability)실을 방문해 구성원들과 행복 실천을 나눴다.

김 총괄사장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잘 이끌어줘선·후배 간에 상상하고 계속해서



김준(가운데)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13일 SK에너지 릴라이어빌리티실을 방문해 구성원들과 행복 실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성장에 나가기 바란다"며 구성원 간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김 총괄사장은 본인의 행복 실천으로 "SK이노베이션의 전 구성원과 행복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함께 걷고 함께 만들기 위해 2020년에는 연 50회 이상 구성원들과 모여 격식 없고 행복한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웰빙두부' 김명신 쿠키아 대표

1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의 농촌 융복합 산업인(人)으로 두부과자 생산업체인 '쿠키아'의 김명신(사진) 대표를 선정했다.



김 대표는 조, 수수 등 지역에서 재배하는 잡곡을 사용해 두부를 활용한 과자류를 생산한다. 이와 함께 가공·수출·교육 등 경영 다각화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쿠키아는 지역 내 영농조합법인·제조업체와 협약을 맺고 흑미, 두부 등 원물을 공급해 '5곡 두부과자', '뚝 두부스낵' 등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쿠키아가 사용하는 국내산 농산물은 36톤 이상으로 대규모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해 공장 설비 견학 및 인력교육을 진행하고 사내 청년고용비율 87%, 이민자 등 취약계층 고용, 기부활동 확대 등 경영수익의 사회환원 사업에도 적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쿠키아는 코스트코와 이마트 등 국내 대형 유통매장 진출은 물론 베트남과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시장 개척해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글로리 신춘문예' 시니어작가 21명 배출

한국문학의 미래와 문단의 발전을 견인할 역량 있는 시니어 작가들을 발굴하는 '2020 제1회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예' 시상식이 15일 오전 스위스그랜드호텔 화이트홀에서 개최됐다. 글로벌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글로리서울안과가 후원한 이번 공모의 시상식에는 최충천 글로벌경제신문 대표이사, 구오섭 글로벌서울안과 대표위원장, 류원근 글로벌경제신문 편집국장, 이석중 글로벌서울안과 이사를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했다. 시, 단편소설, 동화, 수필 등 4개 부문에서 한국을 대표한 시니어 작가 21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번 신춘문예 공모 당선작품은 편집 과정을 거쳐 책으로 발간된 후 교보문고 등 국내 주요 서점과 인터넷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인사

◆동계청 ◇과장급 전보 △행정자료관리과장 김경희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 보임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 신대규 △정보보호산업본부장 이석래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 황성원 ◇단장급 보임 △미래정책연구실장 최광희 △융합보안단장 이용필 △개인정보정책단장 오용석 △개인정보대응단장 이종화 △보안인증단장 김호성 △정보보호R&D기술공유센터장 박희은 △인터넷기반단장 조준상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 김희은 △데이터이용기술지원센터장 심동욱 △지역정보보호총괄센터장 이종구

◆쌍용건설 ◇승진 △부사장 안국진 △전무 김민경 안재영 △상무 이종현 △상무보A 손진섭 김재진 ◇신규 선임 △상무보B 유대현 조주성 임재승 장운석 박태승 류

동훈 최세영 박종원
◆EBS △수신료정상화추진단장 강영숙 △정보보호단장 박성환 △유아·어린이 특임국장 정영홍 △출판국장 정선경

부음

▲천민경 씨 별세, 김종범(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직무대행) 씨 부인상 = 15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031-382-5004
▲김화숙 씨 별세, 백승권(한국광해관리공단 상임이사) 씨 모친상 = 15일, 보령시 대천역전 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7시, 041-932-1414
▲김동주 씨 별세, 남승창(프로야구 LG 트윈스 전 홍보·운영팀장) 씨 모친상 = 15일, 경기도 성남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31-787-1500

▲임정수 씨 별세, 홍준식(전 서울시향 경영본부장) 씨 모친상, 이봉규(현대자동차 좌동 서부점 대표) 씨 장모상 = 15일, 부산의료원 특2분향실, 발인 17일, 051-607-2990

▲정원영(진영전자 사장) 씨 모친상, 정수현(서울경제신문 디지털미디어센터 기자) 씨 조모상 = 15일, 대전시 남대전장례식장 3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042-285-4004

▲김배길 씨 별세, 김현수·규성·영표·미리 씨 부친상, 주철현(전 여수시장) 씨 장인상 = 15일, 광주광역시 서구 천지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8시, 010-4878-4515

▲곽현주 씨 별세, 박승호(전 농협은행 지점장) 씨 부인상, 박윤술(서울신문 사진부 기자)·익서(전문건설공제조합 과장) 씨 모친상 = 14일, 경기 안양평촌한림대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10분, 031-384-4634

자본시장 속으로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짜장면과 단무지가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온 건, 우리 민족성과 공감이 맞았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빨리빨리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 치열한 생존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발 물러서라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그러하다. 어렵게도 이제 이러한 장점은 비난의 영역이다. 성공을 향한 집념은 탐욕으로 배척되고, 타협은 진영논리의 적으로 낙인찍힌다. 한쪽에게 확실히 나쁜 놈이 돼야 마음 편한 세상이다.

짜장면과 단무지는 한국 음식인가? 단무지, 다꾸양은 일본 음식이다. 일본 스님 다꾸양이 무를 소금과 식초에 절여 만든 소박한 사찰 음식에서 유래했다. 일본 다꾸양과 한국 단무지는 모양과 맛이 다르다. 교토 니시키시장의 츠케모노 가게에서 보았던 다꾸양은 우리 단무지보다 색이 더 진하고 겉면도 할머니 손등처럼 쪼글쪼글 주름이 잡혀 있다. 우리 단무지는 아삭하지만 일본 다꾸양은 쫄깃하다. 짜장면도 중국의 자장면에서 유래했다. '자장면'은 장을 볶은 면이란 의미로, 산둥(山東)과 베이징(北京) 곳곳에서 자장면 전문점을 볼 수 있다. 몇 년 전 베이징에서 처음 맛본 원조 자장면은 맛났지만 낯설었다. 삶은 면 위에 볶은 춘장을 얹은 모습은 우리 간짜장과 비슷했지만, 춘장 색깔도 다르고 무엇보다 채소와 고명은 장 위에 따로 얹혀 나왔다. 고기와 채소를 자작하게 한꺼번에 요리해서 면 위에 올리는 우리 짜장면과는 달랐다.

와 미디어·콘텐츠 산업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 모방에서 출발했기에 시작은 조악했지만, 우리 식의 강점을 가미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고, 지금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쟁력의 본질은 속도와 조화였다. 반도체는 진화와 도태의 갈림길에서 한 수 빠른 선제적 투자로 경쟁자를 되출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 K-POP은 J-POP을 향한 흠모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BTS라는 아시아를 넘어서는 글로벌 스타를 배출하고 있다. 분야는 다르지만, 세계를 제패한 두 산업의 공통점은 바로, 들어온 기술 및 콘텐츠를 우리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바로 '빨리빨리'와 '어우러짐'의 문화이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50여년간의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속도와 어우러짐의 문화는 적폐로 물려 폐기되고 있다. 국민 스스로가 느끼는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명분 앞에 '속도'는 뒷순위로 물러났다. 성장 일반도의 정책이 우리에게 준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제도는 그 나라의 사람들의 사유 습관, 다시 말해 문화와 정치권력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성장이 앞서다 보니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소주성'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정책 슬로건이 바뀌었고, 강한 재정집행도 예정되어 있지만, 정책 결정자의 사유는 여전히 지난 50년의 성과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 정책은 투자의 DNA, 바로 성장 속도를 복원시키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 규제를 풀고, 돈의 흐름이 민간투자자로 향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있다. 바로 부동산을 향한 자금 흐름이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길이 막히는 상황에서도, 서울시 청약경쟁률은 10년대 최고치인 31.7을 기록했다. 아마도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심리를 잡고 싶어하는 듯하다. 그간 정책 평가로 본다면, 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주가 될 것 같고, 공급확대 정책은 내놓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강남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어떻게 집을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일반인들은 더 많아지고 격해지는 감정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감정일 뿐이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 좋은 위치에 좋은 물건을 공급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어떤 이도 임대주택에 살기보다,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한다. 감정에 호소하는 정책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다시 욕망의 DNA를 자극

CEO 칼럼



이영 테르텐 대표

다시 일어나 함께 뿔 수 있다면

2019년 연말을 이스라엘에서 보냈다. 한국이 2019년을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2020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떠돌이 있을 사이, 새해를 일찍 맞이한 이스라엘은 분주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인 태양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음력인 자기들만의 유대력을 사용한다. 보통 이스라엘의 신년인 나팔절은 9월 중에 있는데 2019년에는 9월 23일이었고 2018년에는 9월 10일이었다.

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낄 만한 좀 과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간혹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 거 같다. 근데 그건 유대인이라든가 문화, 환경이 모두 다른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 모여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통합을 위해 가르친 것이기도 해. 우린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하며 서로가 가진 장벽을 허물고 친해지려 노력해. 혹시나 조금 불쾌하다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

에 세계적인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다. 성인이 된 후 들었던 가장 이상한 얘기 중의 하나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관한 얘기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살고 있는 우리 집은 6·25 때 피난 온 황해도 이북 사람들이다. 근데 원래 남한 사람들이었던 경상도와 전라도는 왜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지 못하는 걸까? 이스라엘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우리는 왜 분열해야 할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타깝게도 요새는 지역 갈등을 넘어 계층 갈등, 젠더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 등 다양한 사회 갈등으로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호는 주변국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대비할 수 없을까? 우리와 같은 해에 건국한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 이름으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글로벌 최고 혁신 국가를 이룬 배경에는 통합과 혁신의 리더십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투데이, 말투데이

- ☆ 수전 손택 명언 "예술은 지식인이 세계에 가하는 복수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수필가, 예술평론가, 극작가, 연극연출가, 영화감독, 사회운동가. 평문집 '해석에 반대한다'를 통해 문화계 중심에 섰다. 해박한 지식과 특유의 감수성으로 '뉴욕 지성계 여왕'으로 불렸으며, 인권과 사회 문제에도 거침없는 비판과 투쟁으로 맞서 행동하는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33-2004.
- ☆ 고사성어 / 미증유(未曾有)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이라는 뜻. 처음 벌어진 일이라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나 일을 묘사하는 데 쓴다. 불교 경전 능엄경(楞嚴經)이 원전. "부처의 설법을 듣기 위하여 모인 승려들이 미증유함을 얻었다[法筵清衆 得未曾有]." 부처의 공덕을 찬탄하거나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일을 말할 때 자주 쓴다.
- ☆ 시사상식 / 레몬시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질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우량품은 지취를 감추고 불량품만 남아도는 시장을 말한다. 차량 품질 정보를 파는 사람이 독점해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는 중고차를 같은 예쁘지만 속은 아주 신 레몬에 빗댄 표현이다. 일반 시장에선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지만,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혹시 사고 차량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 되레 수요는 줄어든다.
- ☆ 유머 / 희한한 교통사고 안개 잔뜩 낀 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창문을 열어 고개를 내밀고 달려들었다. 그렇게 가는 중에 앞에 희미하게 다가오는 물체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오니 안개 너무 달려오는 맞은편 차 운전사도 고개를 내밀고 달려오고 있었다. 가까스로 차량 충돌은 피했지만 두 운전사는 서로 머리를 부딪쳤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규제 빗장이 하나 풀렸다. 오랜 시간 계류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드디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의 길이 열렸다.

올규제 체제로 전환했으며, 유럽은 익명 정보를 과학적 연구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일본도 개인정보보호법을 2015년 개정해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이들 국가와 한국의 격차가 5-10년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제 업계는 유전자 정보를 접목한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신약 개발은 속도의 싸움이다. 6조 원을 넘는 국내 보건 의료 빅데이터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자 검사·진단 기업들도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제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다. 아직은 연구·개발(R&D) 분야에 국한해 추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먼저 시행령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3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업계는 불법으로 규제한 것 외에는 개방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현장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수첩



유혜은 유통바이오부/euna@

맞춤형 헬스케어 시대 열쇠는 '혁신'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대표전화 (02)799-2600
자본시장1부 (02)799-2647	금융부 (02)799-2665	금융부 (02)799-2665	부동산부 (02)799-2637	팩스 (02)784-1003
산업부 (02)799-2644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뉴스룸부 (02)799-2664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산으로 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Feat. 울지마 톤즈)

질문 기회를 잡으면 세상 똑똑한 척해 볼 욕심에 전날부터 분주했다. '이런 질문 예상 못 하셨죠?'라며 정신 승리를 이를 요량에 속으로 낄낄대며 혼자 신났다.

14일은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 '빅데이'였다. 분주히 손을 들고 눈빛 공격을 날렸음에도 끝내 마이크를 넘겨받지 못한 채 회견이 끝난 뒤, 날아드는 일 폭탄의 파편에 치이고 쫓기며 정신없이 지나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과 목소리는 회견 내내 따뜻하고 차분했다. 내심 불편했음에도 모를 질문에 굳어질 때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회견에서 평범한 사람을 위한 온기는 드물었다. 맨 앞이어야 마땅한 보통의 삶은 통치와 정치의 뒷이었고, 권력 투쟁에 우선순위를 내준 가난한 이들의 살림살이는 응달진 곳에 방치됐다. 이날 문 대통령이 수없이 말했던 개혁과 공정, 정의 어디에서도 소시민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느껴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확실한 변화'를 이날 회견의 테마로 내걸었다.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그토록 확연히 달라지는 것인지 말하지 않았다. 부동산은 더 규제하고, 검찰은 더 개혁하고, 북한은 더 기다리겠다고 했을 뿐이다. 가던 길 그대로 가겠다는 뜻일 뿐이다. 질문이 없었으니 답변을 못했던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동쪽을 묻는 질문에 능숙하게 서쪽을 답한 문 대통령의 언변을 감안하면 동의하긴 쉽지 않다.

이날 회견에서 나왔던 이야기의 중심은 온통 문 대통령이었다. 가장 길게 말했던 검찰 문제에 관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인사권이 서초

데스크칼럼



정 일 환
정치경제부 정치팀장

동에 기본적도, 갈 일도 없을 사람들에게 무슨 상관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수십억 강남 아파트 값을 대통령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으면 '지옥고'에서 매서운 겨울을 버티는 사람들에게 없던 집이 생기는지 말하지 않았다. "외고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고도 북한의 사과 한마디 못 받은 육군 중사 가족에게 감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왜 필요한지 납득시키려는 노력은 없었다.

문 대통령의 직업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직책이 대통령이고 업무는 통치라고 보면 사전적 의미는 얼추 맞겠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는 이보다 좀 더 고차원적이다.

'나라가 나를 저버렸다'는 좌절감에 빠졌던 많은 이들은 새 대통령을 선택하며 희망을 품었을 것이다. 취임 초기 나라가 시끄러웠을 때도 시간이 좀 지나면 여유가 생겨날 줄 믿었다. 그런데 집권 4년 차에 접어들도록 무엇이 나아졌는지, 혹은 나아질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지역감정은 진보와 보수로 변태를 일으켜 다시 창궐하고, 남과 여는 젠더 권력을 놓고 반목하고, 부모와 자녀는 세대 간극을 좁히지 못해 갈등하는데도 대통령의 관심은 박해

보이기만 한다.

행여라도 문 대통령이 극한의 갈등을 더하기와 빼기의 계산이 작동하는 직업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기를 기원한다. 선출직 공무원에게 광장의 인파는 얻을 표와 버릴 표로 분류됐을 것이니, 갈등하고 반목하도록 내버려 두는(심지어 부추기는) 것이 남는 장사일 수 있다.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14일 있었던 기자회견은 실망을 넘어 이런 의심을 키울 만큼 차가웠다.

문 대통령은 올해 키워드로 '확실한 변화'를 약속했다. 사실 밀도 끝도 없는 모호한 말이지만 보스의 영이 떨어졌으니 분명 공직사회가 분주히 움직일 테다. 하지만 시민들은 아무런 변화도 못 느끼는데 대통령의 입맛에만 맞는 변화가 될까 걱정스럽다. 대한, 소한 지나도록 내뿜개져 얼어 죽을 지경인 살림살이에 "긍정적인 지표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던 말처럼 1도 공감 못할 변화는 아니었으면 한다.

정초부터 정떨어지는 이야기를 늘어놓자니 한 해 운수가 사나울 것 같아 따뜻한 이야기로 글을 마친다. 신년 기자회견이 있던 14일은 고 이태석 신부의 10주년 기일이다. 문 대통령도 "내가 이 신부 경남고 선배"라며 자랑했던 이다. 이날 늦은 귀가 후 무심코 컨 TV에서 '울지마 톤즈'를 다시 보니 집 나간 줄 알았던 영혼이 아직 내 안에 있음이 느껴져 적잖이 위로가 됐다. 참고로 이태석 신부 선종 10주기를 맞아 '울지마 톤즈2 : 슈크란 바바'도 개봉 중이라고 한다. 그가 하느님 곁으로 떠나던 순간 남겼다는 말인 "Everything is good"을 많은 사람들이 화면을 통해서나마 듣게 된다면 '확실한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다.

whan@

시설

세금 일자리만 늘려서는 고용구조 개선 안된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수가 2715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용률은 60.8%로 0.7%포인트(P) 상승했다. 실업률은 3.4%로 전년과 같았다.

작년 연간으로는 취업자가 30만1000명 증가했다. 2018년(9만7000명)에 비해 큰 폭 늘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노인 고용이다. 작년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 대비 37만7000명 불어나면서 196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수 증가 폭을 훨씬 넘는다.

거꾸로 30대 취업자가 5만3000명, 40대는 16만2000명 줄었다. 이들은 고용시장의 중추다. 30~40대 취업자 감소세는 2017년 10월 이후 작년 12월까지 2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40대 취업자는 1991년(-26만6000명)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8.9%로 전년보다 0.6%P 하락했지만,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2.9%로 2015년 이래 가장 높다.

작년 산업별 취업자도 재정 일자리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명)에서 가장 많이 늘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인 제조업(-8만1000명), 금융 및 보험업(-4만명)

등의 감소세가 뚜렷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12월까지 21개월째, 금융·보험업은 12월 연속 줄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수치를 두고 "고용의 양과 질 모두에서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9년은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자평했다. 15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도. 취업자와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동의하기 어렵다. 작년 취업자수 증가는 2018년 최악의 고용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고,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30~40대 취업, 제조·금융업 고용 사정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세금 쏟아부은 초단기 노인일자리가 숫자만 늘었다. 주당 근무시간 통계에서도 53시간 이상 취업자는 47만8000명 줄고,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저임금의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30만1000명 늘어 198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청년실업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고, 경제활동의 허리인 30~40대와 양질의 제조·금융업 일자리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 지금 고용시장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고 있으니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민간의 활력을 죽이고 재정적으로 고용지표를 끌어올리는 것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고 의미 또한 없다.

문선영의 썰



부동산부 차장

믿음과 우려 사이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규제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의 이번 부동산 언급 의도가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의 발언들이 단순 경고 메시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12·16대책이 작년 11월 20일 문 대통령이 TV토론에 나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 현재 방법으로 못 잡는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한 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나왔기 때문이다.

사실 투기 세력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 진짜 집이 필요한 서민들을 좌절시키고 고통을 줬다는 정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 부동산 문제를 투기 세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역시 동의한다. 시중에 넘쳐 흐르는 유동성과 해마다 부족해지는 공급 물량, 주거 환경 차이에 따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

며 집값은 폭등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진단은 잘못된 대책을 불러올 수 있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서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발언처럼 말이다. 일단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집값을 끌어내리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집값을 되돌린다고 해도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강남지역의 집값은 투기 세력뿐 아니라 월등한 주거 환경과 우수한 학교 등의 이유로 부족한 공급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이 몰리며 올려놓은 부분도 크다. 실수요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집값을 끌어내릴 경우 역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당장 대출을 끼고 매입한 실수요자들은 자산가격 하락으로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적 부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 회복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까지 커질 수 있다.

단순히 부동산을 때려잡을 존재로만 생각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다 섬세하게 원인을 살피고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moon@

건강 100세 소변 보려 깨지 않기 위한 숙면 원칙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24시간 주기의 시계가 돌아간다. 이러한 24시간 주기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에너지 대사 측면에서 이로운데, 수면 교란으로 인해 24시간 주기가 깨지게 되면 당뇨, 고혈압, 간질환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 소변은 24시간 주기의 신체 생리기능에 따라 방광과 콩팥에 각각 별도의 영향을 미친다. 콩팥에서는 낮보다 야간에 소변 생산을 더 낮추게 되며 방광에서는 이에 맞춰 저장하는 용적을 늘려준다.

그런데 밤에 일어나 소변을 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24시간 주기의 교란에 따라 낮과 동일하게 소변 생산이 많이 발생하며, 저장 용적도 낮과 동일하게 낮은 용적에서도 지각되어 밤에 깨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습관적으로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고 잔다면 밤에 깨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하는 것이다.

더불어 빛에 대한 노출을 조절할 필요도 있다. 밤잠이 없는 사람들의 나쁜 습관은 잠이 올 때까지 휴대폰을 만지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다. 기계로 인한 빛에 대한 노출은 잠이 들려는 뇌를 아침과 같

은 시계로 조정해 잠이 드는 상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막상 잠이 들더라도 어긋난 리듬으로 인해 깊은 잠에 들기 힘들게 한다.

밤늦게 찾아오지 않은 잠 때문에 무로함에 쳐다보는 휴대폰 불빛, 건강을 챙긴다고 무리하게 많이 마시는 물, 나이 들면 잠이 준다고 지레 포기하는 마음 등 어떻게 보면 쉽게 고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이지만 잘 몰라서 혹은 장사속으로 비몰려진 광고로 인해 우리는 나쁜 건강 습관을 익히고 말았다. 물은 적당히 마시고 잠을 잘 때는 빛에 대한 노출을 생각하며 자기 직전에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등을 삼가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환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소변을 보기도 하는데 이는 전립선비대증, 과민성 방광, 배뇨근 기능저하와 같은 노화에 따른 배뇨의 병적인 상태도 있다. 하지만 그런 질환도 치료하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나이 탓이라고 하나들 포기하지 말고 먹고 자고 마시는 기본적인 생활부터 바로잡아야 하겠다. 김진욱 중앙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삼성 미세먼지 해결가전은 다릅니다

숫자 하나의 차이가
마시는 공기의 차이를 가져오니까
99.99를 넘은 독보적 99.999 필터시스템

삼성 무풍큐브

- "미세먼지 99.999% 제거"는 하이브리드 집진필터의 0.3µm 사이즈 미세먼지 집진효율을 의미하며, 필터에 흡입된 공기에 한함. 필터를 한번 통과하는 공기에 대해 필터 통과 전/후 미세먼지의 개수를 비교하여 제거 효율을 계산함(시험 입자: 0.3µm KCl 입자, 풍속: 0.1m/s). 국제인증기관 intertek의 검증을 받은 자사 실험 결과이며,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미국냉공조학회(ASHRAE) 정의 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함. * 해당 이미지는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미세먼지 시대의 청정한 해답 삼성 미세먼지 해결가전



무풍에어컨 그랑데 무풍큐브 제트 에어드레서